

# IV

## 한탄강 관련 예술 작품 자료

---

- 4.1 문학
- 4.2 음악
- 4.3 미술
- 4.4 사진
- 4.5 영상자료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 제4부. 한탄강 관련 예술 작품 자료

한탄강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을 조사한 결과를 문학(고전문학, 현대문학-시, 소설, 시나리오), 음악, 미술(조각 포함), 영상 자료 등으로 목록화하여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와 작품, 간단한 해설과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작가와 작품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지속적인 관심과 수집 노력이 요망된다.<sup>1)</sup>

### 4.1 문학

#### 4.1.1 고전문학

##### ① 서거정

1) 到麻田寄漣川李太守(마전에 이르러 연천 이 태수에게 부치다.) - 사가시집 권14

|                  |                        |
|------------------|------------------------|
| 葡萄綠漲澄波渡(포도록창징파도) | 포도빛처럼 넘실대는 물은 징파도 나루요  |
| 躑躅紅蒸寶蓋山(적촉홍증보개산) | 붉은 놀처럼 철쭉꽃 화려함은 보개산일세  |
| 却憶離亭相送處(각억리정상송처) | 문득 생각나는군 이정에서 서로 송별할 땐 |
| 春風堪賞亦堪嘆(춘풍감상역감탄) | 봄바람이 완상할 만도 한탄할 만도 했었지 |

2) 漣川(연천) - 사가집보유(四佳集補遺) 3권

|                  |                           |
|------------------|---------------------------|
| 滑滑春泥怯馬蹄(활활춘니겁마제) | 봄 진흙탕 길 미끄러워 말도 가기 겁내는 구나 |
| 楊州行路互高低(양주행로호고저) | 양주서 오는 길 울퉁불퉁 높고 낮고 하여라.  |
| 大灘已怕冰猶薄(대탄이파빙유박) | 한탄강에선 얼음이 외려 얇은 걸 겁냈더니    |
| 諸嶺回看雪尙齊(제령회간설상제) | 돌아보니 여러 산봉엔 눈이 아직 가득구나    |
| 破帽輕裘增料峭(파모경구증료초) | 해진 모자 얇은 옷이 봄추위를 더하여라     |
| 宦情羈思轉淒迷(환정기사전처미) | 벼슬 정황 나그네 생각이 처량하기만 하네    |

1) 특히 고전문학 분야는 여러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漣川客館依山靜(련천객관의산정)

연천의 객관은 산을 의지하여 고요한데

欹枕高眠日向西(의침고면일향서)

베개 베고 편히 누워서 석양에 이르렀네.

## ② 이색

### 1) 寶蓋山 地藏寺(보개산 지장사) -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5권 시(詩)

游山如啖蔗(游山如啖蔗)

산에 노는 맛이 감자(甘蔗) 씹는 것 같아

最愛入佳境(最愛入佳境)

가경에 들어감이 가장 사랑스럽네

雲望共無心(雲望共無心)

구름을 바라보니 함께 무심해지고

溪行獨携影(溪行獨携影)

계곡 길엔 홀로 그림자와 짝하노니

鐘魚林壑空(鐘魚林壑空)

종소리 울러라 숲과 계곡은 텅 비고

殿宇松杉冷(殿宇松杉冷)

전각엔 소나무 삼나무가 차갑구나

甚欲辦青纏(甚欲辦青纏)

몹시 푸른 행전을 마련하고 싶어라

臨風更三省(臨風更三省)

바람 맞으며 다시 세 번 반성하네

### 2) 寶蓋山 石臺菴 地藏殿記(보개산 석대암 지장전기) - 목은집(牧隱集) 목은문고 제5권 기(記)

보개산 석대암의 비구(比丘) 지순(智純)이 나에게 그의 화소(化疏)를 써 주기를 청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소(疏)를 들고 공경(公卿)간에 다니며 쌀과 베[布]를 얻으면 나의 소용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는지라, 오히려 하루아침 이슬이 되어버려 역사(役事)의 준공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할까 두려우나, 나의 뜻은 불가불 뒷사람에 알려야 하겠고, 내 뜻을 이어받도록 하려면 역시 구설(口舌)로만 전할 수 없으니, 감히 선생의 한 말씀을 청하는 바입니다.” 한다. 나는 말하기를, “불교도들이 환화(幻化)를 잘하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건축 기공 등은 초개(草芥)를 줍는 것보다도 쉽게 하여 허다한 사찰과 빛나는 영적(靈跡)을 남긴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니, 보개산의 지장석상(地藏石像)도 또한 그의 하나이다. 지장의 상서로운 감응은 세상이 다같이 아는 바이라, 비록 붓으로 써서 기록하지 않더라도 좋으나, 유독 지순이 이에 잊지 못하고 있기에 그 마음가짐을 아주 없어지게 할 수 없는지라, 이 때문에 그 말을 기록하고, 또 뒤에 지순을 계승할 사람에게 권면하는 바이다.” 하였다.

순의 말은 좋은 말이다. 생사(生死)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비록 생존하고 있으나, 명일은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의 생사란 큰일이라 이를 만한 것이다. 거울에 비치면 숨김이 없기 때문에 불(佛)에 빌고 귀의할 즈음에 어둡고 미혹함을 제거하고,

총명과 지혜를 준 것은 고금을 통하여 이미 징험한 자취가 많다. 이제 지순이 이미 높이 믿고, 그 일을 받들어 왔다. 지장보살이 그 지혜를 더하고 더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감히 알지 못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 뒤에 정성껏 또 부지런히 구하여도 그의 총명과 지혜를 얻고 얻지 못하는 것도 역시 감히 알지 못할 일이다.

비록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불보살의 마음과 더불어 본래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 있어서는 더하지 않고, 중생에 있어서는 줄지 않는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능히 죄를 뉘우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여 잠깐 사이에 그 본연의 착한 마음을 발하면, 본심의 전체와 대용(大用)이 완전히 드러나서 일생을 고요히 앉아 전제(全提) 단제(單提)를 얻은 자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어찌 조그마한 총명과 조그마한 지혜에 그칠 뿐이리오.

이미 이로써 지순에게 고하고, 또 그 규모 제도를 물으니, 그는 말하기를, “지장의 석상(石像)은 3척 남짓하고, 석실(石室)의 높이는 6척이며, 깊이는 4척이요, 넓이는 4척이라.” 한다. 이제 지순이 지은 집 북쪽 처마가 석실의 위를 덮어 비가 오면 항상 낙숫물이 석실 북쪽으로 흐르게 한 것은 대개 석상을 비호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정근(精勤)하는 자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寶蓋山 地藏寺 重修記(보개산 지장사 중수기) - 목은집(牧隱集) 목은문고 제2권 기(記)

중 자혜(慈惠)를 내가 좌주(座主) 익재선생(益齋先生)의 부중(府中)에서 처음 서로 만나 보니, 키가 크고 이마가 넓으며 모양이 질박(質樸)하고 말이 곧아 선생이 매우 사랑하였다. 그가 있는 곳은 보개산 지장사이다. 익재선생이 돌아가실 적에도 자혜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제(子弟)가 부형(父兄)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니, 진실로 상인(上人) 중의 존칭. 자혜를 가리킴)은 여러 중들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난을 알았다.

자혜가 일찍이 절 일로써 경사(京師 북경)에 달려가서 공경(公卿)들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이름이 중궁(中宮)에 퍼져 내탕금(內帑金)을 내어서 절 기구를 만들었고, 절이 이룩되자 임천 위선생(臨川危先生)의 글을 빌어 절을 만든 전말을 기록하여 돌에 새겨서 배에 실어 보내고, 자혜는 향폐(香幣)를 받들고 역마(驛馬)로 달려와서 돌을 절의 정원 가운데 세우고, 낙성회(落成會)를 크게 베풀었으니 참으로 그는 유능한 사람이다.

신축년에 병화가 절에 미쳐서 집이 남은 것은 대개 3분의 1 이었었는데, 자혜가 분발하여 새로 세우려고 하니, 이에 원조(元朝) 황비(皇妃)와 본국 왕비가 돈을 대고 철원군(鐵原郡) 최맹손(崔孟孫)과 감승(監承) 최충보(崔忠輔)가 이를 도왔다. 정당(政堂) 이공(李公)은 그 조부가 자혜를 사랑한 까닭과, 판사 박후(朴侯)는 그 장인이 자혜를 사랑한 까닭으로, 자혜 대우하기를 익재선생의 평상시와 같이하여 다 재물을 베풀어서 중건하는 공을 마치게 한 것이다. 병진년 4월 25일에 대장경을 전독(轉讀)하여 낙성식을 하였다.

자혜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늙었으나 내가 이 절에 대해서는 일을 부지런히 하였으니, 현시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기록하지 않으면, 다른 날 돌에 새긴 기록을 읽는 이가 오늘 일을 어찌 알겠는가? 지금 돌에 글을 새기려고 하나 돌이 이 땅에 나지 않고, 연경(燕京)으로 달려가고자 하나 길도 막혔고 내 몸도 매우 쇠하였으므로, 장차 목판에 새겨 벽에 걸어 두었다가 돌에 새기는 일은 뒤에 동지를 기다리겠소.” 하니, 그 말이 매우 슬퍼서 내가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말하기를, “명산 보찰이 없는 곳이 없는데 반드시 이 산에서만 살고 이 절만 수리하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는가.” 하니, 자혜가 초연히 말하기를, “스승의 명이라,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공의 말과 같이 할 것이요.” 하였다.

아, 자혜는 능히 그 스승을 저버리지 않는도다. 그 스승이 누구냐고 물으니 진공대로(眞空大老)라 한다. 내 일찍이 특이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 얼굴을 알지 못함을 항상 한하였는데, 지금 자혜와 더불어 말할 기회를 얻으니 어찌 나의 다행이 아니리오. 제자는 스승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손은 선조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다. 어찌 감히 함께 기록하여 후세 사람에게 권하지 않으리오. 이에 기록한다.

③ 김시습

- 梅月堂詩集卷之十 遊關東錄(김시습이 관동 일대(금강산)를 유람하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시로 작성한 시집. 매월당시집 10권에 소재하고 있다.)

1) 渡臨津(도임진)

汀州芳草正萋萋(정주방초정처처)

강물 가의 꽃다운 풀 때마침 무성한데

鳬泛春波自在啼(부범춘파자재제)

봄 물결에 오리 떠서 자유롭게 우는구나.

柔櫓一聲驚起去(유로일성경기거)

부드러이 노젓는 소리에 놀라서 날아가는데

夕陽猶在海門西(석양유재해문서)

지는 해는 아직 해문(海門) 서쪽에 있구나

2) 登臨津岸亭(등임진안정)

柳岸江亭小(류안강정소)

버들 언덕의 강정(江亭)이 작긴 하지만

登臨清興多(등림청흥다)

올라오니 맑은 흥이 많기만 하다.

波聲自瀟灑(파성자참작)

물결 소린 저절로 출렁이는데

人影正婆娑(인영정파사)

사람의 그림자도 춤을 추누나

磯淺魚吹荇(기천어취행)

얕은 여울에는 물고기가 마름을 희롱하

고

汀遙雁弄沙(정요안룽사)

멀리 물가에서 기러기는 모래를 희롱하

네

夕陽何處笛(석양하처적)

석양에 어디서 나는 피리소런지

吹斷碧雲窠(취단벽운과)

푸른 구름 빈 곳을 불어 끊누나

3) 宿抱川人家(숙포천인가)

표연일석향풍교(飄然一錫向楓嶠)

표연히 석장(錫杖) 짚고 풍악산 향해 가니

표묘운산입안요(縹緲雲山入眼遙)

아득한 구름과 산 눈에 들어 멀리 뵈네

견흥차무고미주(遣興且無沽美酒)

흥 보탬에 또한 술을 사지 않을소냐?

애음시부도양소(愛吟時復度良宵)

즐거이 읊을 때에 다시 좋은 밤을 헤아리네

고등창외문정안(孤燈窓外聞征鴈)

외로운 등창 밖으로 가는 기러기 소릴 듣고

왜옥이변간야소(矮屋籬邊看野燒)

작은 집 울 가에서 들불을 바라보네

인견은은폐화하(鄰犬狺狺吠花下)

이웃 개는 경경 꽃 아래서 짖는데

객심청초정무료(客心淸悄政無聊)

객의 마음 쓸쓸하여 그야말로 무료하오

#### 4) 모투영평현(暮投永平縣)

소읍주조위사산(小邑週遭圍四山)

작은 고을에 사방으로 산이 빙 둘러 있는데

단정고수의운간(短亭枯樹倚雲間)

작은 정자 마른 나무 구름새에 의지했네

모연전화봉천첩(暮煙展畫峯千疊)

저문 연기 화폭 펴니 봉우리들 천 겹인데

야수침삼월반환(野水浸衫月半環)

들 물은 장삼 적시고 달은 반이나 둥글었네

인세극지신노대(人世極知身老大)

인세(人世)에선 몸이 늙고 큼을 잘 알았지만

림천하처부안한(林泉何處不安閑)

임천(林泉)이야 어느 곳이 편안하지 않을런가?

명조갱입도원로(明朝更入桃源路)

내일 아침 다시 또 도원 길로 들어가면

승경유래지부간(勝景由來地不慳)

좋은 경치는 본래 땅이 감추지를 앓는다네

#### 5) 寶蓋山(보개산)

寶蓋山容碧(보개산용벽)

보개산의 모습이 푸르렀으니

東州秋色多(동주추색다)

동주(철원)에 가을 빛이 많기도 하다.

年光急似箭(년광급사전)

해 빛은 빠르기 살과 같은데

人事薄於羅(인사박어나)

사람 일은 비단보다 더 얇구나.

古壑煙嵐靜(고학연암정)

옛 골짜기엔 저녁 노을이 고요하고,

長途歲月賒(장도세월사)

갈길이 머니 세월은 멀기도 하다.

飄飄緣底事(표표연저사)

정처없이 떠다님은 무슨 일이나?

到處卽爲家(도처즉위가)

닿는 곳이 바로 집이 아닐런가?

## 6) 石臺菴(석대암<sup>2)</sup>)

攀蘿捫壁上風梯(攀蘿捫壁上風梯)

덩굴 쥐며 절벽 잡고 풍제에 오르니

菴古庭松一鶴棲(菴古庭松一鶴棲)  
었네.

암자 오랜 뜰 소나무에 학 한 마리 깃들

林下磬聲風外切(林下磬聲風外切)

숲 아래 경쇠소리 바람 밖에서 간절한데

西峯殘照落寒溪(西峯殘照落寒溪)  
네.

서쪽 봉의 남은 해는 찬 시내로 떨어지

## 7) 深源寺(심원사)

古木千章下(古木千章下)

천장이나 되는 큰 고목 아래에

岑峯有梵宮(岑峯有梵宮)

높다랗게 범궁이 솟아 있구나.

鳥啼庭樹靜(鳥啼庭樹靜)

새가 울고 뜰의 나무는 고요한데,

齋罷客廊空(齋罷客廊空)

새가 끝나자 객랑(客廊)은 텅 비어 있네

---

2) 보개산 석대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보개산(寶蓋山) 관음봉(觀音峯)에 있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에 속하는 심원사(深源寺)의 부속암자이다. 720년(성덕왕 19)에 사냥꾼 이순석(李順碩)이 출가하여 창건한 절로서, 창건설화가 전래한다. 어느날 순석과 순득(順得) 두 사냥꾼은 금빛 멧돼지에 활을 쏘았는데 멧돼지는 피를 흘리면서 관음봉 쪽으로 달아났다. 그 뒤를 쫓아 샘물이 있는 곳까지 가니 멧돼지는 보이지 않고 왼쪽 어깨에 화살이 꽂힌 지장보살석상(地藏菩薩石像)만이 샘 속에 있었다. 이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두 사람은 참회하고 출가하여 도를 이루었다. 그 뒤 그들은 300명의 제자와 함께 이 절을 창건하였고, 두 사람이 항상 숲 속에서 돌(石)을 모아 대(臺)를 쌓고 그 위에서 정진하였으므로 석대사라고 이름 하였다. 고려 때 중렬(中悅)이 중창하였고, 1400년(정종 2) 사승(寺僧)들이 삼창하였으며, 1861년(철종 12) 내당금(內帑金)을 받아 중건하였다. 1887년(고종 24) 김상궁(金尙宮)의 시주를 얻어 중건하였고, 1931년 모연금(募緣金)으로 중수하였으며, 1935년 주지 서상인(徐相仁)이 중수하였다. 이 절은 창건설화 외에도 절에 얹힌 많은 이적(異蹟)들이 전래되고 있다. 절이 있는 보개산은 금강산·오대산과 함께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지 않는 영산(靈山)이라 하며, 지장보살상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지장보살의 상주처(常住處)로서 높이 신봉되는 기도도량이다.

高岫夕陽薄(高岫夕陽薄)

높은 산엔 석양빛이 얇아졌는데

小溪楓葉紅(小溪楓葉紅)

작은 내에 단풍잎은 붉어 있구나

行行皆勝地(行行皆勝地)

가는 곳마다 모두 명승지이니

何必哭途窮(何必哭途窮)

길 다함을 슬퍼할 필요 왜 있나.

#### 8) 渡大灘(도대탄: 한탄강을 건너다)

渡口波清淺(도구파청천)

건널목의 물결은 맑고도 얇아

臨流可數魚(림류가수어)

흐름 보니 고기를 셀 수가 있네.

江山初霽後(강산초제후)

강산은 비로소 비 개인 뒤요.

風月九秋餘(풍월구추여)

풍월은 한 가을이 다 된 나머지라

葦岸漁舟穩(위안어주온)

갈대 언덕엔 고깃배가 평온하고,

山城古木疏(산성고목소)

산성엔 고목들이 듬성하구나.

前程何處是(전정하처시)

앞으로 갈 곳은 어디메가 그 곳이냐?

桑柘暗村墟(상자암촌허)

뽕나무가 동리에 무성한 곳이네.

#### 9) 大田途中(대전도중: 한밭 도중에서)

日暮人稀飢鶻鳴(일모인희기골명)  
우니

저물녘에 사람은 드물고 비둘기는 주려

途中秋思正崢嶸(도중추사정쟁영)

도중의 가을 생각 그야말로 쟁영하다.

何當一上逍遙頂(하당일상소요정)

어찌 한번 소요산에 올라감에 당하랴 ?

快得逍遙不世情(쾌득소요부세정)  
얻고 하네.

시원하게 소요산의 불세정(세상에 없는 경치)을

#### ④ 이이

1) 望寶蓋山(보개산을 바라보다) - 율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권2

寶蓋山容入望中(寶蓋山容入望中)

보개산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네

洞門應有白雲封(洞門應有白雲封)  
지.

골짜기 어귀엔 응당 흰 구름이 막아섰겠

遙知隱者饒春睡(遙知隱者饒春睡)  
같으니,

짐작컨대 은자도 봄잠에 깊이 빠진 것

松下殘碁斂未終(松下殘碁斂未終)  
지.

소나무 아래서 두던 바둑 치우진 않았겠

#### ⑤ 금강산 가는 여정의 한 사례

남효온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추강집(秋江集) 권5) 중에서

을사년 4월 보름날에 서울을 출발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유숙하였다. 정묘일에 90리를 가서 입암(笠巖)에서 유숙하였다. 무신일에 소요산(逍遙山)을 지나서 큰 여울(한탄강)을 건너 60리를 갔다. 연천(連川) 거인(居仁)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기사일에 보개산(寶蓋山)을 지나고 또 철원(鐵原) 고동주(古東州) 들을 지나고 남으로 머리 돌려 백여 리를 갔다. 금화(金化)에서 유숙하였다. 경오일에 금화현(金化縣)을 지나서 60리를 갔다. 금성(金城) 향교(鄉校)에서 유숙하였다.

신미일에 창도역(昌道驛)을 지나서 보리진(菩提津)을 건너 78리를 갔다. 신안역(新安驛)에서 유숙하였다. 임신일에 비에 막혀 신안(新安) 후동(後洞) 백성 심달중(沈達中)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계유일에 우독현(牛犢峴)을 건너서 화천현(花川縣)을 지나고 보리진(菩提津) 상류(上流)를 건너 추지동(湫池洞)으로 가는데, 시내를 따라 올라가니 일기가 매우 차고 산의 나무는 바람을 받아 한 쪽으로 기울어져 연한 잎이 겨우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아가위는 만발하여 진달래는 아직 싱싱하니, 일기가 서울보다 2, 3배나 차운 것을 깨달겠다.

### 4.1.2 현대문학

#### (1)

① 『겨울 한탄강에서』(이승호 시집, 이승호, 월간문학 출판부, 2006. 1 발자국들(겨울, 한탄강에서 외 13편의 시, 2 밥은 먹고 있으니 외 14편의 시, 3 늙은 거짓말 외 15편의

시, 4 맨땅에 눕다 외 14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겨울, 한탄강에서> 이승호(철원문학회 동인, 철원에서 교직생활을 함)

한탄강 계곡에서 나는 들었다.  
찌렁찌렁 얼음이 터져 찢어내는 솔바람 소리  
핏줄 돌아나고  
관자놀이 일어서며 팽창하는 강  
그 비명 소리를

나는 제대로 잠 이룰 수 없었다.  
뒤돌아본 순간 얼어버린 강물, 그때  
우리의 사랑은 너무 끔찍해  
이불도 없는 솔잎 자리 알몸처럼 불온했던 사랑  
그대로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얼음 속에 굳어버리고 싶었으므로

다시 얼음장 밑으로 천 년의  
물길이 터져 흐르고  
강은 서서히 제 몸을 풀어 놓는다  
겨울 한탄강 얼음의 최후는  
늪고 흉측한 살갓을 드러낼지라도  
천만 굵이 새살은 다시 터져 흐른다.  
비명처럼  
그 시절의 사랑처럼.(22쪽)

\* 강원도 철원에서 교직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단의 땅 한 가운데를 흐르는 이 강을 바라보며 뭔가 큰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다. 얼음장 밑으로 천 년의 물길이 터져 흐르는 한탄강 계곡에서 그는 그동안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끔찍하고 불온했음을 느꼈다.

<동송 가는 길> 이승호

문득, 생각에 잠길 듯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거미줄도 젖고 있겠지  
채소며 나무랑 향아리 새들까지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님이 오신다면  
흙벽의 글씨도 젖고 있겠지  
주인은 가지런히 이불 개엿은 결방 문을  
빼긋이 열어볼 거고, 비가 오면  
호박잎이 蓮잎 같아요  
잠시 말 더듬는 하늘,

개밥그릇엔 밤송이 하나 떨어져 담겨 있겠지  
내일 아침 객은 휘적휘적 산 넘어갈 테고.(42쪽)

<노동당사 앞에서> 이승호

생은 여기서도 교차하고 있구나  
노동당사를 방문하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오는  
흰 옷 입은 노인들  
방금 미니버스에서 쏟아져나온 아이들과  
계단에서 만나다  
순간, 세대와 세대가 뒤죽박죽이 되다

나는 그 광경이 보기에 좋았다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다  
다들 해바라기 같구나  
노동당사 앞에서 흰 옷 입은 노인들은  
잠시 박꽃이 되어주었다.

② 『한탄강의 노래』(이돈희 시집, 한국문연, 2011) \* 연천에서 야생조류 보호활동을 하며  
시를 씀.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장, (사)한국문인협회 연천군지부 명예회장,  
heespoem@hanmail.net

<겨울 한탄강> 이돈희

무너질 듯 버티고 있는 주상절리柱狀節理에서  
고독에 울던 부엉새 슬픈 메아리도  
얼어 버렸다

결빙을 거부한 강물이  
얼음장 밑을 흐르며  
동안거에 든 수도승처럼  
중얼거린다

휴전선 지나올 때  
수중가시 철책에 할퀴  
차가운 상처를 아물리며  
침묵하던 강이  
잘못 지어진 이름을 한탄한다

한탄강漢灘江

한탄강恨歎江

겨울에도 얼지 않는  
서역 창해를  
그리워하며

<한탄강> 이돈희

백두대간, 강원도 평강 땅 어느 산자락이  
어미만이 아는 너의 산실인 것을

식어버린 용암의 갈라진 상처가  
영생을 위하여 주문呪文을 외며 가는  
너의 고독한 객로客路 삼백육십여 리  
아직도 너는 어미 잃은 사슴의 눈물 같은  
유년幼年의 강

삼십 몇 만 년 전  
아니 그보다도 더 아득한 옛날  
지하신이 토해 낸 분노의 뜨거운 선혈이  
평강 철원 연천벌을 뒤덮어 버렸나니  
사악한 것들 그때도 있었을까?

아- 용암에 덮여 불타던 대지  
지금도 검은 주검, 현무암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점토벌을 지나고 있나니

슬프고 아름다운 전설이 수련거리는 강  
백의민족의 아픈 역사를 증거하며 흐르는 강

물돌이 되고 싶어 추락만을 꿈꾸는  
아슬한 용암절리를 힘겹게 보듬고  
직립을 고집하며 너를 지켜봐주는  
천길 벼랑에 눈인사하며

기고 나는 것들과 운명을 같이하던 선사인의 고향  
전곡반도를 휘돌아  
임진강과 혼성하여 바다 되려고

영겁永劫을 안고  
도감포로 가고 있는… \*도감포-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곳

<도감포에션> 이돈희

삼각주 모래톱에 앉아  
낮선 두 물이 웃으며 만나는  
정겨움을 봅니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우리 서로 지나온 길은 달라도  
“서편으로 가야 큰물이 된다”는  
어미들의 말을 되새기며  
이제 한 몸이 될 반가운 인연이라는  
상견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현무암 수직 절벽에 걸린  
계절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지평선 같은 마포리 꽃답벌  
갈대들에게 눈인사하고  
서편 창해로 가는 큰물에게  
손 인사를 해줍니다.

강 건너 동이리 백사장에  
기도하듯 서 있는  
하얀 새들은 자유를 먹고살아 갑니다

크고 넓은 독안 같은 도감포都監浦에션  
수면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보다 낮은 몸짓만이  
참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래톱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낮별이 내려와 가슴에 안기는  
꿈도 꿈니다

\* 도감포 :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점. 옛 포구 전곡읍 마포리에 펼쳐진 꽃답벌과  
미산면 동이리 썩은소 앞의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까지의 지형이 항아리를 닮았다고 함.

<봄, 한여울> 이돈희

햇볕 따스 이른 오후  
물새들 노래가 그리워  
한여울에 왔네

강변엔 아무도 없네  
철새들도 떠나고

몇 잎 마른 꽃을 안은 물억새가  
빋금으로 서서  
여기 바람이 있다고 스삭이네

전설 같은 수마가 으깨고 간  
사랑동 강변에  
사람들이 자작나무를 심어  
삼팔선을 바라보며 서글피 흐르는  
한탄강을 위로하네

얼음 풀린 강물에게  
노래가 너무 길면 울음이 된다고  
훈풍이 불어와 귀땀을 하네

바다로 가 짚물이 될 강물에게  
따스한 햇살이 아쉬워하네  
\* 한여울 : 경원선 전곡리 철교 상류, 삼팔선에 인접한 큰 여울. 한탄강이라는 이름이 '한  
漢여울'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음.

<불탄소> 이돈희

옛날부터 전해오는  
강물의 이야기

여기  
명주실 한 꾸리를 다 풀어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수굴이 있다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세찬 소용돌이  
음험한 수굴에서  
용이 도지 못한 한을 품고 사는 이무기  
어느 날 허기를 느껴  
강 건너 풀밭에 소 한 마릴  
고삐만 남기고 삼켜버렸다는  
무시무시한 설화

8월 햇살에도 속내를 보이지 않으려

검푸른 수평 장막을 치는

“불탄소”

섬뜩하네

이방 나그네의 전신에 소름이 돋네

이 깊은 수굴에 승천의 날을 기다리며

한 마리 이무기 지금도 은둔하고 있을까

\* 불탄소 : 연천군 고문리 농업용 양수장 부근에 있는 깊은 소.

<겨울 양지리> 이돈희

사랑과 평화는  
영하의 대기를 먹고사는  
최전선에 있네

세상에 사악한 전쟁은  
총소리 없는 전쟁  
지금도 이 나라는 전쟁 중

누구이든 밟아주기만을 기다리는  
흙을 뒤집어쓰고 겨울잠도 안 자는  
대인 지뢰들  
휴전선이라는 위선의 선  
바로 턱밑  
여기는 강원도 철원 양지리陽地里

넓은 들 끝자락 산기슭에 포근히 안긴 마을  
추운 밤에도 햇별이 머무는 마을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몸짓으로 말하는  
손마디 굵은 농부님들  
총 없이도 분단 조국을 지키는 국군들이네

그들이 구축한 안가安家가 있는 양지바른 곳  
약속의 후조들 안가도 이곳에 있네  
“새 사랑이 사람 사랑”이라고  
새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자고 작전회의 중  
얼음 빛 밤하늘에서  
별들이 지켜보네

사랑과 평화는  
언제나  
위태로운  
최전성에 있네

\* 철원, 연천에서 월동하는 두루미 보호대책을 논하는 양지리 마을회관에서(2008. 12. 14 일)

<겨울 화석정> 이돈희

아득한 옛날  
강원도 평강 땅 오리산이 토해낸

뜨거운 용암도  
대지를 덮어버리다 멈춘 곳

울곡의 서기 어리는  
임진나루 언덕  
이 겨울도 천 길 적벽에  
석화石花가 웃고 있습니다

세상의 석학  
동방의 하늘 아래서  
조국의 불행을 예감하고  
구국의 충정으로  
십만양병론을 주장하던 임  
시詩의 씨앗을 품고 목상하던 곳

오늘도  
민족분단의 아물지 못하는 상처처럼  
검은 새떼들이 남북의 하늘을 배회하지만  
예스런 풍치 그윽한 정각에 걸린  
임의 팔세부八歲賦 화석정 시 한 수  
야멸친 눈비바람에도  
꽃이 되었습니다.

\* 팔세부 시 : 울곡 이이가 8세 때 지었다는 화석정 시.

<흥가> 이돈희

전쟁의 포화에 눈알이 빠져나가고  
늑골이 무너져버린  
노동당사라는 빈집 하나  
힘겹게 버티고 있다

같은 핏줄 간, 이데올로기ideologie의 승강이질이 있을 때  
이 집 속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파들을 데려다  
갖은 고문과 학살, 만행이 있었다는  
기록이 하얀 판때기에 검게 선명하다

생피를 좋아하는 자들이 연출한 비극 있었다 해도  
철부지한 사람들  
백주에 나타난 유령 같은 이 집과

웃으며 사진도 찍는 볼거리가 되었다

지금은 한가윗날  
변방의 밤이다  
멀리 초병의 기침 소리가 이따금  
시린 가을 대기를 가를 뿐  
고요가 잠을 청한다

소름 돋는 전설이 사는  
흥가의 들그림자를 벗어나 하늘을 보니  
휘영청 밝은 달이 서방으로 가다가  
걸음을 잠깐 멈추었다

달의 눈물을 보았다

\* 노동당사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에 위치한 북한 공산당 당사. 1947년 초부터 반  
공인사들을 사찰하며 대남 공작을 주도하던 곳. 고문과 학살에 의한 유골이 발견되기도 하  
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탄강 간이역> 이돈희

철마도 강이 좋아  
잠깐 쉬어 가는 역

한 그루 소나무는 없어도 좋다.

갈대와 쑥부쟁이  
쥐똥나무 울타리가 역무원이다.

철가지에 앉아 세월을 조리질하는  
딱새 한 쌍이 씨그늘이고  
강바람이 승객이다.

나그네 환송과 환영은  
물새들 뭍이다.

혼자 사는 실향 노병의 고향이다.

고독을 먹고 사는  
한 여인의 추억이자 기다림이다.

<정연리의 봄 1> 이돈희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한낮

정연리 합수머리엔  
원앙새 한 쌍 졸고 있었다

평강군 장암산에서 흘러온  
잔설의 눈물 섞인 한탄강과 남대천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도감포로 가는 길을 묻는다

이 합수점이 한국전의 비극  
철의 삼각지 분기점이다

남방한계선을 코앞에 둔  
금강산 가는 녹슨 철교가  
여기서 금강산은 225리란다

물소리 청랭한 여울목에  
물오리 한 떼 내리려다 인기척이 싫어  
비무장지대로 회항해 버린다

외로운 전략촌 강변에서  
알몸으로 서서 겨울난 갈대들도 새순을 올린다  
약속의 봄별이 온도를 높이면서  
언제나 변방의 봄은 노루 꼬리만하다고  
물소리 새소리 들으며  
온종일 머물다가란다

- \* 정연리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최북단 전략촌.
- \* 장암산 : 북한 평강군에 있는 산, 한탄강 발원지.
- \* 도감포 :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지.

\*\*\*이돈희의 시는 크게 민족적 공간으로서의 한반도와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고향인 한탄강에 대한 초월과 회귀라는 면으로 분출되면서, 동시에 예리한 비판정신이 내면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도감포’와 ‘한탄강’은 시인의 생명 의지이며, 근원 지향의 상상력이며, 결과적으로 시인의 시적 의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로 기능하게 된다.(김병호, 시인, 협성대학교수)

③ 『선 번째 흐르는 한탄강』(이철우, 신광문화사, 2011. : 책에는 한탄강의 노래(시), 한탄강의 기도(기도문), 한탄강의 조약돌(단상과 동시) 등이 있다. 포천문인협회 회원, 포천시 관인면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한탄강네트워크사무처장, 17대 포천연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은하수 밤사이 내려와 아침 물결로 반짝이고  
이슬 맺힌 풀잎에 눈짓하며 머언 길 가려하네  
남대천아 너는 무얼 보고 왔느냐  
그리운 별 보고파서 꿈길 따라 내려온 길  
바위결에 부딪히며 갈길 몰라 서성이네  
아- 아 소리쳐라 한-탄강아  
물새 아니 듣겠느냐

수천 년 맴도는 전설을 저녁 여울로 되뇌이고  
한 맺힌 바위에 불 비비며 가던 길 돌아보네  
비둘기낭 너는 무슨 생각 감기나  
그리운 님 품에 안고 숨죽이며 살아온 길  
바람결에 스치우며 가는 길을 재촉하네  
아- 아 일어나라 한-탄강아  
내님 아니 보겠느냐

깊숙이 흐르는 네 영혼 시린 가슴 펼쳐 봐도  
아직은 모르리 모르리라 네 발길 멈추는 곳  
도감포야 너는 어딜 가려 하느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안타까운 네 인생 길  
큰 물결에 휘감기며 온몸 바쳐 떠나가네  
아- 아 잊지 마라 한-탄강아  
우리 아니 만나겠냐

#### <한탄강 2> 이철우

한탄강은 젊기에 힘차게도 흐르고  
한탄강은 깊기에 사연들도 많구나  
한탄강은 초음이 용암이라 뜨겁고  
한탄강은 차기에 냉철도 하구나  
아 아름다운 한탄강  
하늘의 귀한 선물  
사랑해요 한탄강  
어머니 같은 생명수

한탄강은 처음은 갈 수 없어 신비하고  
한탄강은 낮기에 겸손도 하구나  
한탄강은 여럿이 모여서 하나 되고  
하나 된 그 여울이 우리들의 한탄강  
아 아름다운 한탄강  
하늘의 귀한 선물

사랑해요 한탄강  
어머니 같은 생명수  
어머니 같은 한탄강

<한탄강이 한탄강 사람들에게> 이철우  
나는 지금  
30만년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지를 뒤엎는 굉음과  
옛것을 남김없이 삼켜버린 시뻘건 용암이  
나를 덮고 대지를 덮었습니다.

나와 함께 숨 쉬던 모든 생명들은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람, 짐승, 물고기, 벌레, 초목  
그 어느 것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니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대지도 사라졌습니다.  
용암은 꾸역꾸역 대지를 덮고 또 덮었습니다.  
무엇을 지워버리고자 그리하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세상은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끓던 용암도 눈비에 식어가고  
바람결에 더운 몸을 식혔습니다.  
막막한 평면위에 내려지는 빗물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옛 멧부리는 마침내 본래의 물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산 저산에서 쏟아지는 물길은  
너무도 당연하게 옛 물길을 찾아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단단한 용암 껍질이였어도  
나는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의 내 하얀 속살이 드러나기까지는  
수만 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용암대지는  
다시 생명을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탄생의 비밀은 이러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도 이 깊은 절벽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덮었던 그 뜨겁던 용암들이  
이젠 나를 지켜주는 성이 되었습니다.

대지와 신새벽의 열락을 나누게 되자 생명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잉태하고 또 잉태했습니다.  
무성하고 또 무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양지바른 강가에 그들은 나를 기대어 살았습니다.  
나는 기뻐했습니다.  
다시 강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흔들림도 있었지만  
나와 용암대지는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내 속살과는 분명히 달라도  
이젠 그 용암이 내 살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대지 속에 내 싹을 박고  
지금도 생명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뜨겁던 대지는 옥토가 되고  
깎아지른 절벽은 성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새로운 발자취도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다 보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식어버린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은 기적이  
바로 저 뜨거운 용암이었다는 것을...  
생명은 따뜻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이고 낱고 기르고 번성하였습니다.  
대지는 물결이 번지듯 따뜻한 온기를 되찾아 갔습니다.  
나와 대지는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건너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이별도, 살육도 보았습니다.  
나를 사이에 두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 몸에 흡혈판을 박고  
쉴 새 없이 빨아대면서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먹다 남은 구정물은 다 깊은 내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생채기가 있었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전쟁의 참화도 지켜본 나였습니다.  
핏물이 되어버린 나는 그것마저도 보듬고 흘렸습니다.  
지금도 내 몸뚱이를 두드리는 포성이 있지만  
이젠 타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그 전쟁의 참화보다도  
사람들의 약탈보다도  
더 두려운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사람들이 내가 위험한 존재라고 역지를 부리며  
내 흐름을 막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 두터운 대지도 뚫고 제 물길을 찾아내었는데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흘러왔는데  
이제 용암으로 뒤덮였던 아득함보다  
더 아픈 막힘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기막힌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의 진실은 질식되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순환이 절단되려 합니다.

물론 나는 언젠가 내 모습을 찾습니다.  
그 뜨겁고 두껍던 용암도  
나를 숨겨둘 수가 없었듯이 말입니다.  
하물며 한줌도 안 되는 인간 욕망의 덩어리쯤이야.  
그러나 그 대가는 바로 한탄강 사람들의 몸이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두십시오.  
나는 앞으로도 모든 것을 용납하고  
또 그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욕망의 대가는  
온전히 한탄강 사람들 그대들의 몫입니다.

어머니 품속을 떠난 아이처럼  
골짜기에 숨어서 부끄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도 기어이 그대들이 욕망의 덩어리로 나를 가로 막는다면  
나는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을 표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깨달음은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2007년 3월 19일)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이철우, 신광문화사, 2010. : 저자의 한탄강 관련 수필, 논설, 칼럼, 제안서 등을 묶은 책이다. 『내정치학 교과서는 성경』, 이철우, 신광문화사, 2010. : ‘제5장 내사랑 한탄강’에는 ‘한탄강이 한탄강 사람들에게’ 등 저자가 한탄강댐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쓴 15편의 글이 실려 있다.

④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정춘근(2003년 한탄강댐 백지화 선포식에서, 철원 거주, 문학동인 ‘한탄강’ 동인, 철원문인협회 회원)

귀담아 들어라 사람들아  
조용히 흐르는 한탄강은  
우리 아버지 땀 줄기와  
어머니 눈물샘에서 발원하여  
산과들을 적시고  
이 땅에 사람들 몸 속에 흐르는  
생명의 핏줄이고  
희망의 푸른 힘줄이다

금빛 은빛 물살로 씻겨진  
곰보돌 작은 구멍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땀 냄새를 맡고  
어머니 눈물 자국을 보는  
한탄강변 사람들은  
강물소리 심장의 박동되고  
바람소리 뜨거운 숨결되는  
강줄기 핏줄기로 맺은 형제이고  
강 건너 다정한 이웃일 뿐

절벽에 진달래 철쭉 피고 지는 봄이 가면  
산 그림자 여울에 일렁이는 여름 오고  
바위틈에 단풍들고 지는 가을 가면  
갈대 꽃 눈처럼 날려 겨울이 오는  
푸른 빛 깊은 우리 한탄강

서러운 눈물 한 방울  
노동의 땀 섞은 적 없는 사람들의  
땀을 만든다는 소리쯤  
잔 여울 소리로 묻어두고  
그 검은 생각도 강물에 씻어낸 뒤  
내가 서있는 자리  
다시 아들 딸들이 서서  
천년 만년 막힘 없이  
이 땅에 푸른 동맥으로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한탄강』 역사와 예술혼, 생명을 품은 큰여울의 강(이연섭, 고래실, 2006, 315-316쪽)

<지뢰꽃> 정춘근

월하리를 지나  
대마리로 가는 길  
철조망 지뢰밭에서는 가을꽃이 피고 있다.

지천으로 흔한  
지뢰를 지긋이 밟고  
제 이념에 맞는 얼굴로 피고 지는  
이름 없는 꽃

꺾으면 발 밑에  
뇌관이 일시에 터져  
화약 냄새를 풍길 것 같은 꽃들

저 꽃의 씨앗들은  
어떤 지뢰 위에서  
뿌리 내리고  
가시철망에 찢긴 가슴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걸까

흘깃 스쳐가는  
병사들 몸에서도  
꽃 냄새가 난다

⑤ 『하늘을 위하여』(신광순 시집, 기호문학사, 1993.-시집의 제3부 한탄강에 ‘한탄강1-한탄강 9’가 실려 있다. 신광순 시인은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출생으로, 한탄강가에서 태어

나 성장하였다. 현재 종묘상을 운영하면서 농사도 짓고 시도 쓰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한탄강.1> 신광순

무엇을 남기고 떠나 왔기에  
저리도 빈 모습을 하고  
돌아와 앉아서 떠날 줄 모르나.

굽이져 흐르는 강물을  
떠밀려 내려온 젊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저리도 숨죽이는 침묵을 만드는가.

밀려오는 물줄기에 비켜서지 못하고  
끝없이 표류하다  
잠시 뒤돌아본 물살

둥글둥글해진 자갈 틈에  
아직도 각을 이룬 돌멩이 하나  
시린 강바람만  
물소리를 달랜다.

<한탄강.2 친구야, 고향 가자> 신광순

친구야, 고향 가자.  
지금쯤 우리의 고향엔  
나른한 봄이 졸고 있을게다.

친구야, 고향 가자.  
한탄강 뚝길에는  
빨기가 빠죽 빠죽 우릴 기다리고 있을게다.

친구야, 고향 가자.  
마을 뒤 작은산 솔밭에는  
왜가리가 먼저 와 있을게다.

친구야, 고향 가자.  
반딧불 이마에 붙이고  
술래잡이 하러 가자.

친구야, 고향 가자.

<한탄강.3 투망> 신광순

반짝이는 미련을 보고  
투망을 던졌다.

잡힌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작은 비늘 몇 개만이 그물코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눈을 감고 어둠을 향해  
투망을 던졌다.

이끼낀 커다란 바위가 잡혔다. 아니  
움직일 수 없는 바위에 투망이 잡혔다.

<한탄강.4 합수머리> 신광순

신답리 지나 청산 아오라지  
작은 돌이 모여 하나되어 흐르는 곳.  
고문리 사격장  
절망의 붉은등에서 흘러내린 기다림은  
굴막사를 지나 불탄소에 이르면  
순백의 희망이 되어 흐릅니다.  
님이여!  
저 강은 알고 있습니다.  
깊고 먼 기다림의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를  
님이여!  
절망으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흐름은  
우리의 기다림만큼이나 깊이가 있습니다.  
님이여!  
당신의 긴 기다림 위에  
오늘밤도 새도록 꽃뿌리를 합니다.  
더 큰 하나됨을 위하여

<한탄강.5> 신광순

내 기억이 살아 숨쉬는 한탄강에  
열칸짜리 그물을 쳤다.

물살이 센 여울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매듭들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큰 고기는 그물을 타고 넘었고  
작은 고기는 그물을 뚫고 지났다.

낮익은 고기 한 마리 그물에 걸린다.

반짝거리는 수많은 기억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물위에 올라온 고기 한 마리  
둥근 눈에 알 수 없는 눈물 가득 채우고  
전설같이 인어가 된다.

<한탄강.6 통현국민학교 그네> 신광순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한 구석  
내 유년의 꿈을 그리도 어지럽게 흔들던 그네  
더 이상 흔들 어린 꿈이 없어 졸고 있네.

주인 잃고  
꿈도 잃고  
미래도 없이  
알 수 없는 바람이 가끔 그를 흔들 뿐이다.

\*통현국민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더 이상 유지가 곤란해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어떤 기업의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다. 그곳을 거쳐 간 수많은 학생은 모두가 병어리였고, 주민은 장님이었다. 문화란 그것이 아니다. 꿈이란 그것이 아니다. 교문에 못질은 할지언정 졸업생의 가슴에 못까지 박지는 말아야 했다.

<한탄강.7 청산댐> 신광순

두 곳의 물이 하나 되어 흐르던 아오라지.  
이제는 콘크리트에 막혀  
물도 섰고 나도 섰고 지는 해만 서럽다.

세차게 흐르던 물도 넓적바위의 오만함 앞에  
어쩔 수 없이 돌아 흐르던 과거는 수몰되고,  
내 유년의 조약돌도  
벳터거리의 모래사장도  
모두가 당신은 모르는 옛날.

한탄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삼형제바위를 어루만지며

자살바위를 휘감고  
넓적바위를 돌아  
한탄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잘 된 개발은  
잘못된 자연만도 못한 것.  
한탄강은 한탄한다.  
옛길을 따라 다시 흐르고 싶다고.

<한탄강.8 바람과 눈물> 신광순

팔월 그믐 밤 고문리 골짜기에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은하수 강물위에 떠다니는 하얀 미소는  
머물다간 바람인가요 눈물인가요.

한탄강 불탄소 벼랑위에 섰습니다.  
지금 참을 수 없을 만큼 허허롭습니다.

늦가을 깊은 밤 강바람에 실려온  
날카로운 기억의 파편들이 가슴에 꽂칩니다.

<한탄강.9 한탄강을 모르는 그대에게> 신광순

한탄강은 눈물이었소  
순백의 응어리가  
굽은 세월만큼 깊이 패인 서름의 골을 타고  
흘러내린 백옥같은 눈물이었소

한탄강은 한탄이었소  
건널 수 없는 자유의 땅  
갈 수 없는 에덴의 동산을 향한  
목마른 한탄이었소

한탄강은 희망이라오  
큰 강을 만나러 수많은 장애물을 넘으며  
낮은 바닥으로 기어오는 작은 물줄기를 껴안으며  
넉넉해진 가슴으로  
넓은 바다를 만나러 가는 희망이라오

<바람은 바람일 뿐이에요> 신광순

우리 눈을 뜨지 맙시다.  
말없음 속에 깊은 바닷속에 잠겨 버립시다.  
천년의 세월을 달고

바람은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로 자신을 전하는데 실패해 왔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이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해 왔잖아요.

바람은 바람일 뿐이에요.

늦가을 차탄리 길가엔  
코스모스꽃 한 송이가 조용하다.

<호미> 신광순

연천읍내 장터 대장간  
짙막한 쇳덩어리 하나  
풀무불속 들락거리며  
작은 몸 시뻘겋게 달구어지면  
억센 팔뚝 대장장이에게  
늘씬나게 두들겨 맞고  
탁한 물속에 들어가 몸서리치다  
적당한 모양새 만들어지면  
부지런한 농부 손에 쥐어진다.

보가산 기슭 흙을 긁어, 자갈밭을 긁어  
억센 풀포기 끌어올리며  
뽕족한 날 뭉그러질 때까지  
달고  
달아야만 한다.

『땅을 위하여』(신광순 시집, 기호문학, 1993.)

<달팽이> 신광순

한탄강 상류.아오라지 밑.꼬인 자기 운명.검은 면류관에 숨기고 시커먼 바위에 위태롭게 붙어 살아야만 했다.

물살은, 그의 작은 흔들림도 받아주지 않고 야속하게  
자꾸 떠밀어 낸다.  
기어 올라야만 했다.

비록 또 기어오르다 물살에 떠밀릴지라도  
시커먼 바위 물살 세지 않은 곳에 바위의 일부처럼  
붙어도 微動도 하지 못하는 바위에 청진기를 들이대고  
바위의 病을 찾는다.

비비 꼬인 몸.풀어.얼굴을 내밀고 물속에 스며드는  
햇빛을 봤다.  
病은 그에게 있었다.  
시커먼 바위등에 항시 안주하고 숨으려는 도피증상이.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상의 몸부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물살에  
작은 집을 송두리째 흔들리며 떠밀리고 있었다.

『모든 게 거기 그대로 있었다』(신광순 시집, 도서출판 흙, 1990.)

<달구지에 실은 나의 詩와 누룽지> 신광순  
무릎이 쭈서 오는 걸 보니, 또 비가  
오려나 보다

경기도 연천 고문리 사격장에 버린  
내 유년의 세발자전거  
시흥군 안양 주제비에서 공중분해된  
내 20代 오토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바에서 부서진  
내 30代 화물차  
마부도 없이 빠거덕거리며 가고있는  
내 40代 달구지

무릎이 쭈서 오는 걸 보니, 또 비가  
오려나보다

누룽지,  
굵어라! 박 박

무쇠술 바닥에 늘어붙은  
유년의 부스럼  
16세기 문둥이 살 문어나듯  
자꾸 일어나는 詩想을  
박 박 긁어, 두리몽실 뭉쳐서  
사우디아라비아 모래벌판의 갈보에게나 줘라.

\*알코바 :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이름. 페르시아만 근처의 해안도시이며 중동 건설경기가  
한창일 때 한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던 곳.

\*갈보 : 아랍어로 개(犬)란 뜻.

“내가 어렸을 때 한탄강은 바다 같았고  
내가 젊었을 때 한탄강은 스승 같았고  
내가 나이들어 한탄강은 친구 같았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말씀은 잔소리 같았고  
내가 젊었을 때 어머니 말씀은 등불 같았고  
내가 나이들어 어머니 말씀은 친구 같았다.  
어머니는 나에게 최초의 스승이었고  
지금도 최고의 스승이다.”(책의 서문 중에서)

⑥ 『한탄강 사랑』 : 제1회 한탄강 사랑 백일장 작품집(철원문화원, 2004),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의 시와 수필 작품에 대한 백일장을 실시하고 시상하였다. 단행본(113쪽) 발  
간

⑦ <한탄강 둘레길, 우리 거기서 만나!> 김자현(시인, 소설가, 한국 소설가협회, 한국 작가  
회, 포천문인협회 회원, 문화예술잡지 <포천동네사람들> 발행인)

비둘기낭을 지나 추가령 협곡을 따라  
사시 천색이 펼쳐지는 곳  
한탄강 둘레길 우리 거기 함 가보자

북풍과 남풍 전설이 만나  
어떻게 기암과 괴석이 되었는지  
기다리다 기다리다 별의 눈물을 먹고  
산나리 된 그녀가  
쑥부쟁이 된 그이가  
원추리 된 사랑의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현무암 단애를 내려다보면

멧돼지 잡아 어엿차- 돌아오던  
구석기인들 돌을 쪼던 선사의 소리 들리고  
구리 빛 어깨들이 어른거리는 저녁

수수만년 불어 온  
바람의 노상에 우리의 삶을 진설하고  
허리까지 동강 난 한탄의 강  
세월의 갈피를 따라 흘러갔느니  
이제 부활의 강, 찬탄강이라 개명을 하자  
중흥의 새 시대가 여기서부터 발원하니  
남으로 한라  
북으로 백두 너머까지 길 떠나 보자

⑧ <漢灘江> 이재옥(一香, 시인, 한국문인협회회원, 경기도 문인협회 이사, 해동문인협회 사무처장, 한국작가중앙위원, 포천문인협회고문)

포천 한탄강  
용암지대 현무암 협곡

선사 시대 이어온 자연 환경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강

제주도 주상절리 있고  
천혜의 자연자원  
포천 한탄강에도 주상절리

화산의 몸짓인가  
자연의 깨지는 소리  
천지에 활짝 핀  
자연의 신비로움

한탄강 8경 화현으로  
천연 기념물 명승지로  
행복의 꽃이 피는 소리

⑨ <평야에서> 이원용(시인, 포천문인협회 고문, 월더니스문학 고문, 독도문예대전등 문학 상 수상 10여회, 홍조근정훈장등 50여회 수상, 블로그 “날지 않는 나비”)

철의 삼각지 들녘에

저만치 돌아 한탄강이 그리고  
휴전선이 흐른다

피 묻은 철조망은  
어릴 적 흰 소지 매어둔 성황당처럼  
말없이 무거워  
지나가는 객이래야  
나라의 지킴이 초병들

너의 그 초라한 선 위로  
재두루미 날아 오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나의 짧은 혀는  
무슨 곡절로 기도 하는가

바람이 몰고 온 북향의 봄인데  
저 산위에 흐르는 선은 얼어 있다  
소원을 빌어라  
슬프도록 외쳐라  
얼어붙은 선에서 녹아내린 수분으로  
아름다운 농사를 짓다  
스러질 지언정  
어찌하여 나는  
목청이 쉬도록 그 이름을 부르는가

<마지막 열차를 보내고> 이원용

너는 경원선 한탄강역에서  
눈물 흘려 본적 있느냐  
마지막 표 던져지면 개찰구 문이 잠기고  
허황한 강독에 서서  
강 건너 불빛이 잠긴 여울에 마음을 던져  
흐느끼는 소리 들어 보았느냐

세월이 가면 잊혀 질지 모른다 해도  
진저리치도록 괴로웠을 이념의 쫓대 끝에서  
북녘이 보이는 곳으로 기차는 가다 멈췄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동포들의 울음소리 들리느냐

전상의 혼으로 남은 이별의 손들이  
흔들어 주는 소리 들리느냐

승강장 아래에는 강물이 흐르고  
별빛도 흐른다  
북에서 떠나 남으로 돌아  
임진이 만나 경계를 건드리며 서해로 가면  
그곳에는 모두 모였을게다  
살아있는 혼 한 많은 아우성들이  
다 모였을 게다

북에서 오는 물살이 차다  
승강장 불빛도 응얼대며 밤새도록 흐른다  
아픈 메시지들이 흘러간다

\* 임진이: 임진강

<한탄강> 이원용

긴 세월 맑던 샘터에  
어느 틈에 이별의 한숨이 흐르더니  
강여울도 몸살 앓더라

노닐던 고기떼 숨이 막혀 울고  
황새 청둥오리 물총새들마저  
고향을 그리며 울먹이고

몇 해 전 부끄러운 사람들 모여  
한 많은 목소리로 고향이야기 하면서  
그리워 그리워 목청 올리더니  
언젠가 원앙이 노닌다

그리움으로 날아  
땅 끝 저편 먼 나라 갈 생각 않고  
이웃 불러들여 터 잡고 산다

새암줄기 맑아 찾아온 객들이  
하늘 높이 노닐다 물에서 놀다  
고맙다고 날갯짓 한다

한 많은 이별의 시간 속에서  
잊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부둥켜안은 채

같이 살자고 살아가자고

한탄강마을에 봄이 오면  
배고픈 해와 달이  
이상과 현실의 틈바구니를 헤매던 날  
송사리 놀던 개울 따라 산등성이 따라  
그어 놓은 얼룩의 줄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더러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잊어버리고  
소문처럼 흘러간 애달픈 사연들이 서성이는 터전

가난과 피바다로 얼룩진 골짜기마다  
기막혔던 진실들이 총포소리에 사라졌다가  
땀과 정열과 용기로 일어서고

해맑은 씨앗들이 터를 잡았네

민주주의에도 질서가 존재한다며  
아우성치던 세대들이 떠나던 날  
동행하던 지혜를 모아 품에 안으며  
역사의 그루터기를 어루만지는 민초들이 머물더니

언제부턴가 만나야 한다며 쳐다보던 북녘하늘에  
늘어선 은하수 다리를 따라 건너면  
고향이라고 외치던 목숨들은 어디로 갔는지  
지혜를 갈아입은 망부석이 외롭네

역사의 맥박이 뛰고 있는 전선에서  
저 산마루에서 마주보는 초병들의 눈초리를  
통일이라는 솟대위에 머무는 진실로 보듬어 주시어  
조국의 미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배고픈 민초들이 머무는 저 산등성이를 넘어  
소식을 묻고 왔다가 말없이 떠나는 비둘기에게  
평화의 사연을 물어다가  
석양처럼 북녘의 산야에 뿌리게 하소서

가슴에 맺혀 있는 그리움의 씨앗들을  
위대하고 충만한 이해의 터전에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소서

역사의 맥박이 뛰고 있는 한

염원의 숨소리가 그치지 않게 기도하여 주소서

⑩ <한탄강(漢灘江)> 원종관(無碍, 경북 경주 출생, 경주중, 경북고졸업, 육군사관학교 25기 졸업, 서울대학원 경영 관리자과정 수료, 육군대령 예편, 포천 문예대학 12기 수료, 포천문인협회 및 마흘문학회 회원, 포천신문사 자문위원)

큰 여울이 탄성 지르며 흐른다  
동족상잔의 아픔을 품은채로 굽이굽이 돌고 돈다

평강공주의 애절한 가야금소리도 머금고  
장졸들의 말발굽 소리 뒤로  
전차, 화포 온갖 전음(戰音)이 뒤를 따르고  
장렬히 전사한 못다 핀 탄성과 애절함을 간직한 채  
묵묵히 흐른다

길게도 흘러내려 임진(臨津)으로 합류할 때  
수많은 골짜기(谷)와 여울(川)이 웃으며 화답한다

변화무쌍한 풍광과 현무암 협곡은  
역사를 대변하고  
백마고지 앞으로 노동당사, 월정역, 고석정(孤石亭), 승일교(昇日橋)가  
우리를 일깨운다

월정리(月井里)거처 철마가 달리고  
동포가 자유스레 왕래할 때에  
한탄(恨歎)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리니

한탄강이 주는 교훈  
그날을 위하여 간직하자  
고귀한 역사의 현장을

큰 여울이여!  
모든 슬픔, 고난, 역경을 모두 씻어  
머얼리 대해(大海)로 날려 버려다오

민족의 웅대한 꿈 이루고  
한바탕 잔치나 하게

⑪ <가고 오는 곳에> 김태희(시조시인, 월간 문학저널 시조 등단, (사)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사) 한국문인협회 정책개발위원,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원, 월간 문학저널

이사. 시분과위원장, 월간 문학저널 신인문학상 심사위원(시조), 중앙일보 시조백일장 8회 입상, 시조집<달래강 여울 소리>, <그날의 소금밭> 외 다수, bitbal@hanmail.net)

언덕 위에 남은 꿈 말없이 내려놓고  
해 끝에서 못 이룬  
아쉬움을 흔들면  
들국菊 핀  
한탄강 둘레길  
수평만이 풀어진다

날개의 꿈 출렁이며 시리도록 날아오던  
철새 떼 어깨 위로  
나직한 희망 하나  
수직이  
꼬치는  
사랑의 첫 시를 쓴다

가을이 떨어지는 서리 맞아 고운 길  
텅 빈 아픔 남겨두고  
그리움도 놓고 싶다  
아프고  
아픈 마음이어  
그래도 울지마라

⑩ <한탄강의 여울소리는 영원하다> 김창호(포천문인협회 회원, 광릉21포럼 대표, 소설집 <광릉숲>, 2인 시집 <너랑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내겐 천국이었어>)

<한탄강에서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김창호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한탄강 벼들개에서  
마홀(馬忽) 고모루성에서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탄강 중리 버들개 마을에서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우리 성웅, 광개토태왕  
(미추홀에서) 수군 5만 이끌고  
한탄강 거슬러 버들개에서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광개토태왕 고모루성에서  
서라벌 포항, 의정부 버들개에서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광릉숲 산연화와  
부들이 싹트는 3월에  
한탄강 버들개에서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월월이 청청나네  
나날이 청청나네...

⑬ <한탄강> 문한종(연천문인협회 회원)

물 많아  
한탄(漢灘)인가  
설음 많아 한탄(恨歎)인가

넷 이름  
한탄(漢灘)인데  
구두선(口頭禪)엔 한탄(恨歎)이니

얼마나  
상흔(傷痕)이 깊어  
제 이름도 뒷전이네.

<한탄강(漢灘江) 소묘> 문한중(연천문인협회 회원)

오늘도 강물은 유유히 흐르건만  
강둑 언덕 배기는  
아직도 복받치는 설음을 달랜다  
이 저쪽 눈 돌리면 바라 뵈는 군부대  
산기슭 곳곳마다 군 참호로  
구멍마다 내민 총구가 누구를  
얼마나 바라보고 겨냥 할 것인가  
삼 번 국도의 차량물결이  
경원선 열차의 터질 듯  
실려 가는 관광객이  
원산 명사십리에서  
해당화에 도취되고  
동해의 넘실대는 푸른 물결을  
함성으로 끌어안고  
춤추며 노래 부를 날을  
언제 어디서 어느 누가 풀 것인지  
정말로 풀림이 오겠는지  
아직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구나.

⑭ <한탄강> 오 령(연천문인협회 회원)

나는 쪽샘에서 태어났을거다  
모든 강의 발원지가 그러하듯

바다를 향하여  
오로지 바다로만 떠날 궁리를 하며  
숨어 들다 휘돌아치며  
달리기만 하는

역사의 숨결  
미래의 새 물결도

너른 품에 안고  
달리기만 하는.

⑮ <한탄강(漢灘江)> 정명재(연천문인협회 회원)

절벽으로 이루어진  
좁고 긴 골짜기  
이어 이어  
모인 물줄기

협곡 따라  
굽이 굽이  
몸의 높낮이 물결로  
주상절리 새기며

어렵게 키워낸  
물길 자식  
임진강에 내어주고  
망망대해 그리워 그리워

아직도 전쟁의 포화속  
잃어버린 어린 자식  
못잊어, 한탄하며,  
눈물로 흐르는 강

※ 한탄강(漢灘江)은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太白山脈]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군, 연천(連川)군을 지나는 136km의 강으로 연천군 전곡읍(全谷邑)의 경계지역에서 임진강(臨津江)으로 흘러들어... 한탄강(漢灘江)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고 임진강으로 되어 흐르는 현실을 비유하여 이 지역 3.8선과 6.25전쟁의 수복지역으로서 분단의 아픈 민족적 상흔을 되새겨 시를 쓴다.

⑯ <한탄강> 조현상(연천문인협회 회원)

미소美蘇가 옛가락 꺾듯  
반 동강 낸 자국, 38선  
한탄강漢灘江이 밤새워 철철 운다.

광복의 기쁨 뒤에 도사린  
천만 이산의 아픔을  
66년의 세월이 행굼질해도

문신으로 깊게 새겨진  
아물지 않는 상처를 어루만지며  
삼백육십 리 굽이굽이마다  
희미한 그믐달이 서성거린다.

열 길 스무 길  
아픈 사연 켜켜이 끌어안은  
주상절리 절벽 아래  
두 빛깔로 등 돌려 흐르는 물줄기  
퍼렇게 멎든 숨소리가  
아직도 거칠다.

해 돋는 아우라지 새벽 강에  
두 손 맞잡고 한데 모여  
싸아 싸아  
뇌성 같은 큰소리로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며  
서해 뱃길 나들이 한번 가자.

⑪ <큰 여울> 조경애(연천문인협회 회원)

풀칠하듯 피어오르는 안개  
희 검은 빛기둥에서 벗어나는 아침  
폭우가 할퀴고 지나간 여울목엔  
강은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떠밀려가는 나무 .흰 속살 드러내고  
하늘빛 고은 금 은린 물결 춤추고  
강 건너 공장 굴뚝에선  
외국인 노동자의 희망이  
하얀 연기로 피어오르네

이국땅에서 그리는 노스텔지어  
뭉게구름 피어오르듯 번져가네

육백년 전설아 숨 쉬는 한탄강  
작은 섬 떠나지 못하는 백로 가족  
토박이로 남으려 하는가

생은 안개 속을 걷은 미로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의 삶  
잊은 듯이 살아가지요

\* 지명 \* 한탄강은 본래 "한 여울"이라고 불렸다. 지도상의 명칭도 "한 여울"이라 표기 됐다. "한탄강"은 즉 "한 여울"은 "큰 여울"이라는 뜻으로 불려졌다.

⑮ <한탄강변에서> 임상섭(연천문인협회 회원)

긴 겨울 고뇌하던 통증  
강물 되어 흐르고  
잔설 녹이는  
봄비 조용히 내린다

현무암 피부처럼 거친  
철쭉 꽃눈 부풀리며  
생기 돌아난다

협곡 감아 도는 한탄강  
수면위로  
조심스럽게 떠 오른 물안개  
고향 대숲으로 번지는  
저녁연기 같다

천리 떠돌다  
날개 젖은 기러기  
비를 털며  
늦은 귀향 서두른다.

⑯ <한탄강 고석정(孤石亭)에 올라<sup>3)</sup>> 최영희(시마을 시부분 신인상)

고생대 중생대를 거쳐  
아- 저 기암의 절벽  
풍상에 씻기고 깎기고 다듬어져  
갖가지 형상으로 섰구나

평강에서 임진강까지 이른다 했던가  
기암절벽을 사이로  
칭칭 휘돌아 흐르는 한탄강아  
북에서 남으로, 남으로  
한때는 노래로

---

3) 시집 <시간의 층계 위에서>, 최영희, 월간문학 출판부, 2011.

한때는 恨으로 흘렀겠어라

저기, 저기쯤에서 일게야, 우리네 할아버지쯤은 되시겠다  
남으로 북으로 철원 땅 이 골을 지나는 발자국 소리  
시대의 의적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는 고석바위  
바위 끝 소나무는 아직 송송 푸르고

바람도 구름도 오가는 한 하늘 북녘 땅  
난, 선 채로 산 넘어 마음만 오가고  
아- 절벽마다 불디붉은  
철쭉이여, 조국을 사랑한 언니처럼 예쁜 꽃이여!  
그대, 그리고 나 이 나라 이 땅 함께 사랑하는 마음일레라  
언제쯤일까  
다시 저 유유했던 한탄강 물줄기 따라  
이 산 저 산  
함께 꽃피고 새 우는 날.

㉔ <한탄강 기억> 윤삼현

강 언덕 위에  
지금도 산 하나의 무게로  
엎혀 있는  
3·8선 바윗돌

강기슭 파란 물살 속에서  
발바닥 간질여 주며  
찰랑거리던  
예쁘장한 조약돌

이번 큰 비에  
저 가벼운 조약돌들  
떠내려가지 않고 견디어 냈을까  
지뢰라도 건들진 않았을까

그리움 속  
아픈 풍경.

㉕ <한탄강을 지나면서> 강대규

그리운 생각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한탄강을 건너면서 바라보는 북한산  
그 자리  
밝힌 잔디에

역사를 딛고 섰네

북녘에는 오랑캐가 남쪽에는 유엔군이  
연합군이 원수처럼 총부리를 겨누던 곳  
피서린  
한탄강 물은  
한에 겨워 울고 있네

포성은 멎었건만 남과 북은 여직 울고  
무심한 역사 속에 소리 없이 흘러가는  
한 맺힌  
원한이라기에  
한탄강이라 부르던가.

㉔ <돌밭에 갔다가> 이아영

한탄강 물살을 차갑게 헤치고  
돌밭을 걸으며 종일토록  
허공虛空만 쳐다보다 공空을 쳤다  
어느 화가의 '장미 가든'에  
장미는 한 송이 없듯이  
산수도 없고 호수도 없다  
무무無無 주문을 외우다  
색계色界에 걸린 나  
붉은 노을 고개 숙인 구릉에서  
소피보는 엉덩이를 훑쳐보는 놈  
내 손그물에 걸렸다  
돌아오는 길, 명석名石이라  
이것이 공즉시색空卽是色입니까?  
텅 빈 바람 속에 작은 물개 한 마리  
사지를 펄떡이며 그대 등줄기  
피돌기가 한창이다, 꽃물이 든다

(2)

① 恨歎江(정을병 창작집, 을유문화사, 을유문고 208, 1976)

\* <한탄강> 외 8편의 중단편 수록

\* 줄거리 : 해방 후 소련군을 피해 서울로 가는 피난민 행렬(나와 김군과 강군, 박군), 소련군이 보초를 서는 한탄강을 만나고, 나는 도강의 와중에 총상을 입는다. 내가 고향에서 가져온 유산을 담은 껌짝 안의 것들이 총을 맞아 뚫어진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 유실된다. 나는 '언젠가는 기어코 이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리라'고 다짐을 하며, 남쪽으로 남쪽으

로 길을 재촉한다.

② 장길산(황석영, )

\* 소설 장길산에서 장길산의 무리가 집합하는 장소의 배경이 된 곳이 지금의 연천에 해당하는 한탄강 지역이다.

(3)

① 한탄강(『운명』, 최인수 시나리오선집, 집문당, 1999---<한탄강> 외 5편의 시나리오 수록)

\* 창작노트 : 6.25세대가 겪은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을 집필할 당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고 같은 민족 형제임에도 남과 북은 철천지 원수로 생각해야 하는 극단적인 시대상이 짓누르고 있었다. 드라마의 화두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내고 끌어가야 할는지 많은 시간을 번민하게 했다. 우선 용기가 필요했다. 이데올로기에 앞서 핏줄이 더 소중한가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펴 나갔다. 마무리를 하고 보니 스퀀스마다 함량이 미흡했다. 그럼에도 이 작품 속에서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내 뚫에는 끈기있게 탐색하고 추구했다. 한계상황에서 다룬 작품이라 더 애착이 간다.(1950년 6월-1951년 4월, 해주)

## 4.2 음악

① 한탄강 : 김은영(국악연주곡)

② 한많은 한탄강 : 이미자(이인권 작곡, 작사, 3분 7초)

<가사>

한많은 한탄강에 한을 두고 가는 님아  
물벼들 살찌거든 소식 한 장 전해주소  
억만년 굶이치는 이 강물 위에  
해마다 슬피우는 이별 많아도  
날같이 서러운 이별이 또 있더냐

한맺힌 한탄강에 한을 남긴 그 사람아  
애탄강 굶이치는 그 물결을 원망마라  
달밝은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무정한 님 그리워 님이 그리워  
외로이 찾아온 한많은 한탄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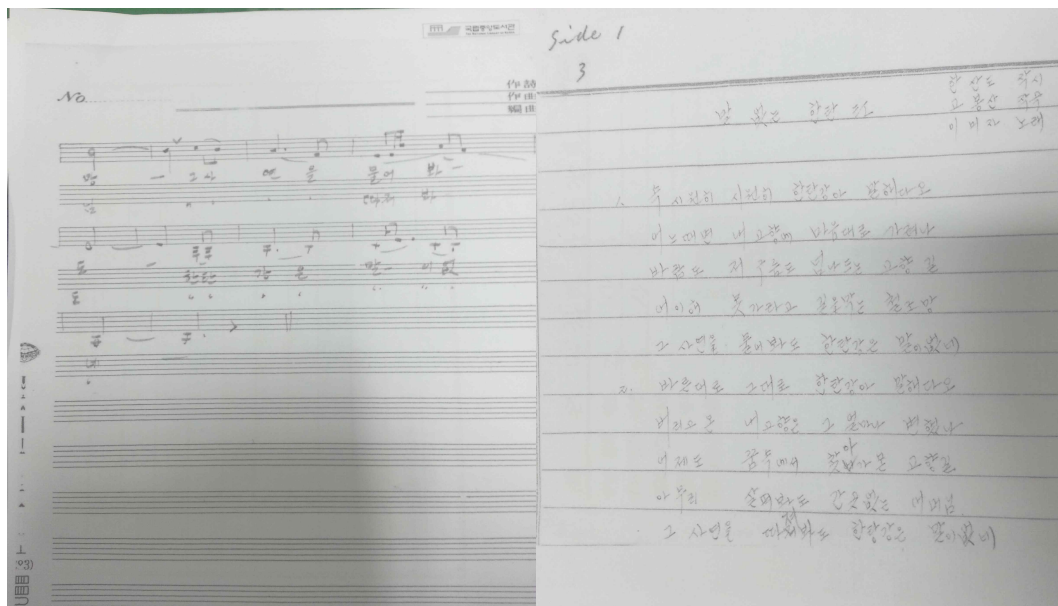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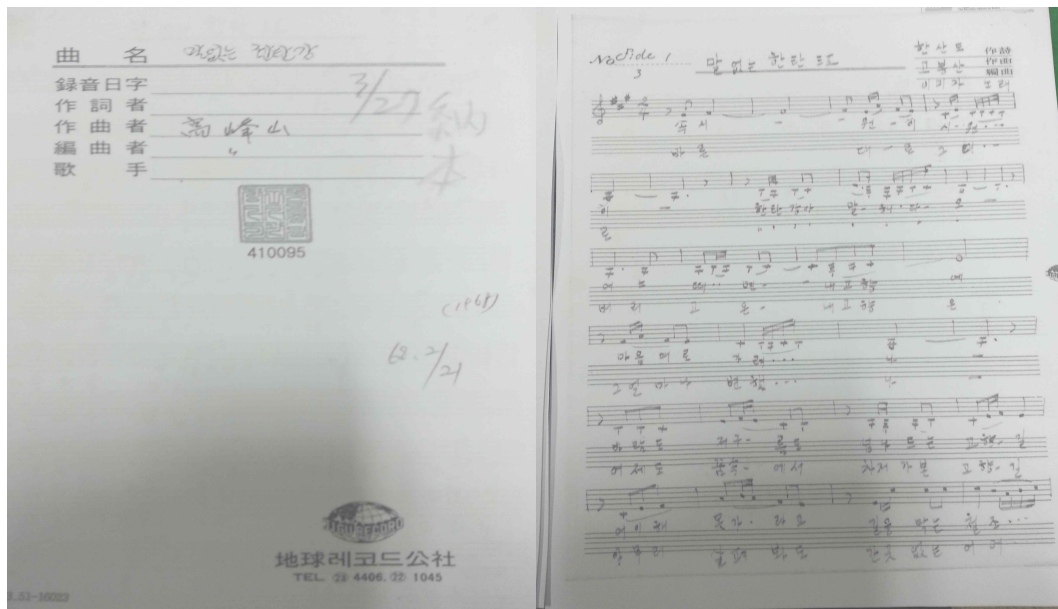
③ 눈물의 한탄강 : 송춘희(정준희 작곡, 작사, 1968, 3분 22초), 박진석(1994, 2분 53초)

<가사>

북녘 땅 고향산천 강건너 보이는데  
구름만이 쫓(넘)는구나 건너(느)지 못하는 강  
해저문 강가에는 물새도 우는데  
언제나 건너가나 배 한 척 없는 강  
아-아 눈물의 한탄강  
두고온 내 가족 강건너 있다마는  
휴전선이 원수더(드)냐 건너(느)지 못하는 강  
한많은 철조망엔 곳은 비 오는데  
사공은 어데 갔나 배 한 척 없는 강  
아-아 눈물의 한탄강

\* 가사의 ( )는 송춘희 곡의 가사이고, 다른 것은 박진석 곡의 가사이다.

④ 말없는 한탄강 : 이미자(고봉산 작곡, 한산도 작사, 지구레코드공사, 1968)



# <가사>

속 시원히 시원히 한탄강아 말해다오  
 어느 때면 내 고향에 마음대로 가려나  
 바람도 저 구름도 넘나드는 고향 길  
 어이해 못가라고 길을 막는 철조망  
 그 사연을 물어봐도 한탄강은 말이 없네

바른대로 그대로 한탄강아 말해다오  
 버리고 온 내 고향은 그 얼마나 변했나  
 어제도 꿈속에서 찾아가 본 고향 길  
 아무리 살펴봐도 간 곳 없는 어머니

그 사연을 따져 봐도 한탄강은 말이 없네

⑤ 말하라 한탄강아 : 가수 ?(김상열 작곡, 작사, 삼화레코드공사, 1968)

曲 名 말하라 한탄강아  
作詞者 김 상 열  
作曲者 김 상 열  
編曲者  
歌  
録音日字

411359

三和レコード公社  
TEL. 28-4201・4202・4203

말하라 한탄강아

곡명 신고 흘러오는 이름 석 자 한탄강아  
추억을 몰라보듯 하늘엔 구름 날라라  
그 옛날에 웃던 네가 원한으로 변했느냐  
눈물 젖은 한탄강아 속 시원히 말해다오

말하라 한탄강아

곡명 신고 흘러오는 이름 석 자 한탄강아  
추억을 몰라보듯 하늘엔 구름 날라라  
그 옛날에 웃던 네가 원한으로 변했느냐  
눈물 젖은 한탄강아 속 시원히 말해다오

<가사>

낙엽 싹고 흘러오는 이름 석 자 한탄강아  
추억을 몰라보듯 하늘엔 구름 날라라  
그 옛날에 웃던 네가 원한으로 변했느냐  
눈물 젖은 한탄강아 속 시원히 말해다오

흘러오는 물결 위에 저녁노을 비치었네

어딘지 울부짖는 짝없는 외기러기들  
 너도 한편 슬퍼하지 네 이름을 원망하지  
 눈물 젖은 한탄강아 속 시원히 말해다오

⑥ 한탄강 : 신동화(장현준 작사, 작곡, 1977, 오아시스레코오드사)

曲名 한 탄 강

作 詞 장 현 준

作 曲 김 현 준

編 曲

歌 手 신 동 화

録音日字

639252

APES - 2854

1977-10-07

문화정보부 등록 제16호

오아시스레코오드社

OASIS RECORD CO.

TEL. 26-5391

26-5392

NB 673.51-97136

한 탄 강

동 산 에 꽃 피 던 한 탄 강 변 에

조 약 돌 로 물 장 구 치 던

그 시 절 이 그 림 구 나

송 아 지 풀 뜯 던 고향

<가사>

1. 동산에 꽃피던 한탄강변에  
 조약돌로 물장구치던  
 그 시절이 그림구나  
 송아지 풀 뜯던 고향

산천을 부르면 메아리도  
구슬프게 우는구나 아-  
고향의 이 소식을  
한탄강아 전해주오

2. 흰구름 흘러가는 한탄강변에  
하염없는 세월속에  
꽃은 피고 또 지건만  
부모형제 소식은 없네  
산천을 부르면 메아리도  
구슬프게 우는구나 아-  
애타는 이 마음을  
한탄강아 전해주오

\* 같은 가수와 작사, 작곡자의 것으로 1977년에 지구레코드공사의 판본도 있음.

⑦ 한탄강 : 가수 ?(김원희 작사, 최인봉 작곡, 오아시스레코드사, 1984)

The image shows a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song "한탄강" (Hantan River). The score is written on a piece of paper with a header section containing the title and credits, and a main section with musical notation and lyrics.

**Header Section:**

- 曲名: 한탄강
- 作詞者: 김원희
- 作曲者: 최인봉
- 編曲者: (blank)
- 歌手: (bl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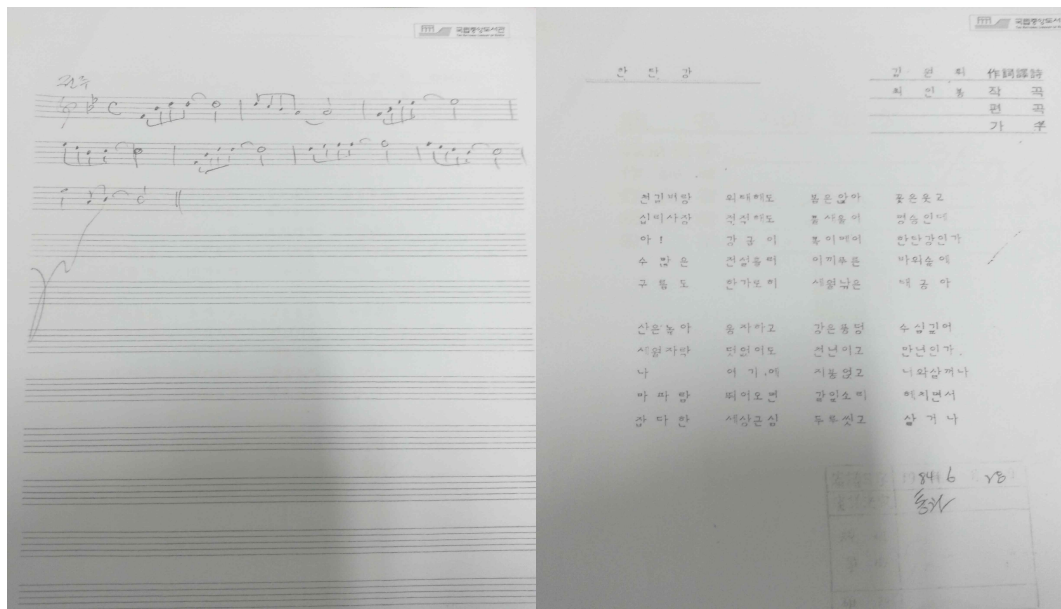
**Main Section:**

The main section contains musical notation (treble clef, 2/4 time signature) and lyrics in Korean. The lyrics are:

산천을 부르면 메아리도  
구슬프게 우는구나 아-  
고향의 이 소식을  
한탄강아 전해주오

하얀구름 흘러가는 한탄강변에  
하염없는 세월속에  
꽃은 피고 또 지건만  
부모형제 소식은 없네  
산천을 부르면 메아리도  
구슬프게 우는구나 아-  
애타는 이 마음을  
한탄강아 전해주오

The score is marked with "No. 1" and "한탄강". It includes a small square stamp with the number "627834" and a handwritten note "심의원호 4406-3384".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the logo and name of "오아시스레코드사" (Oasis Record Co.) with the address "1343, 2-17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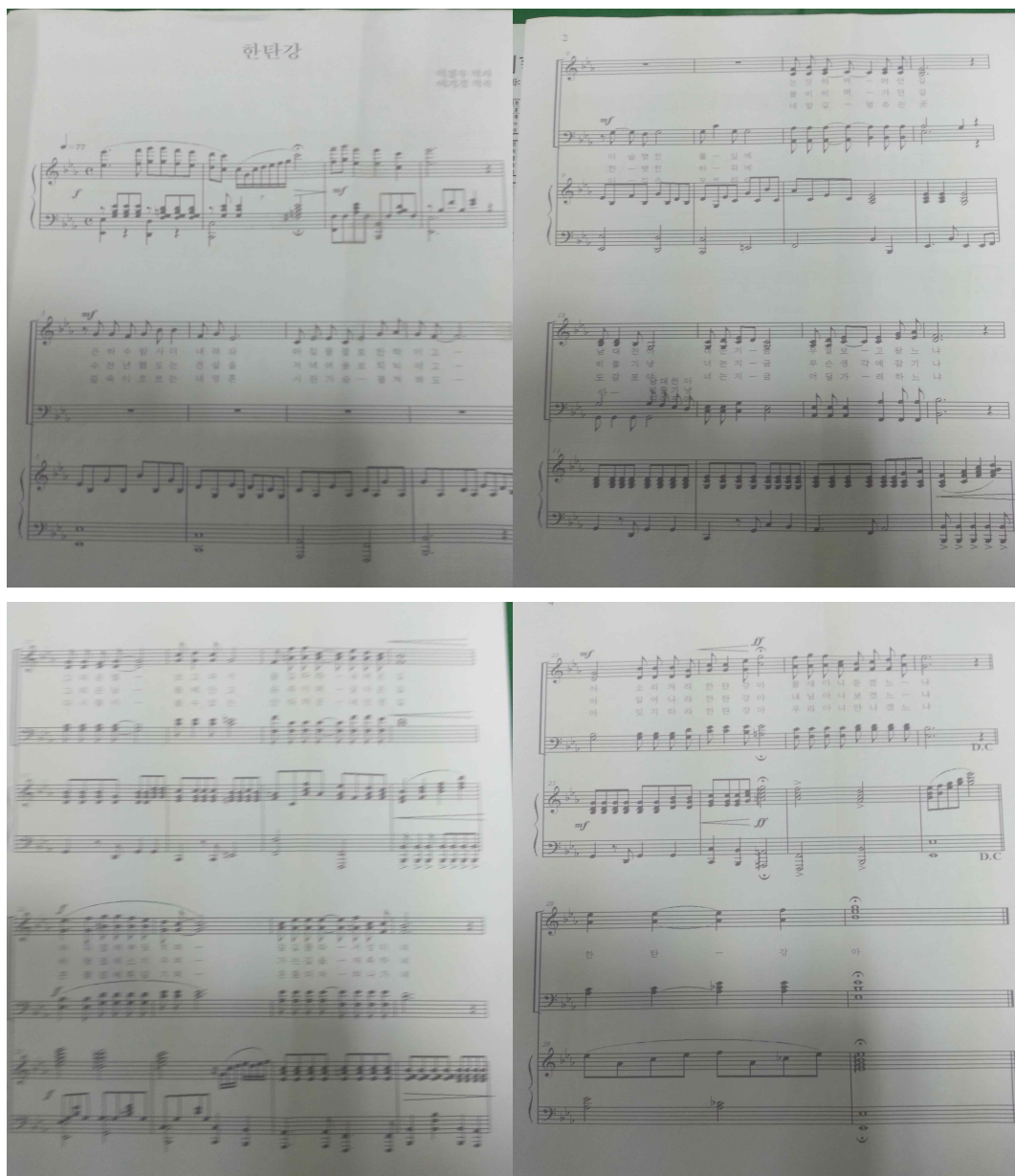


### <가사>

1. 천길 벼랑 위태해도 봄은 앓아 꽃은 웃고  
십리 사장 적적해도 물새 울어 명승인데  
아! 강굽이 목이 메어 한탄강인가  
수많은 전설 흘러 이끼 푸른 바위 숲에  
구름도 한가로이 세월 낚은 태공아

2. 산은 높아 웅자하고 강은 풍덩 수심 깊어  
세월 자락 덧없어도 천년이고 만년인가  
나- 여기에 지붕 엮고 너와 살거나  
마파람 뛰어오면 갈잎소리 헤치면서  
잡다한 세상 근심 두루 씻고 살거나

⑧ 한탄강 1 : 이철우 작사, 이기경 작곡



# <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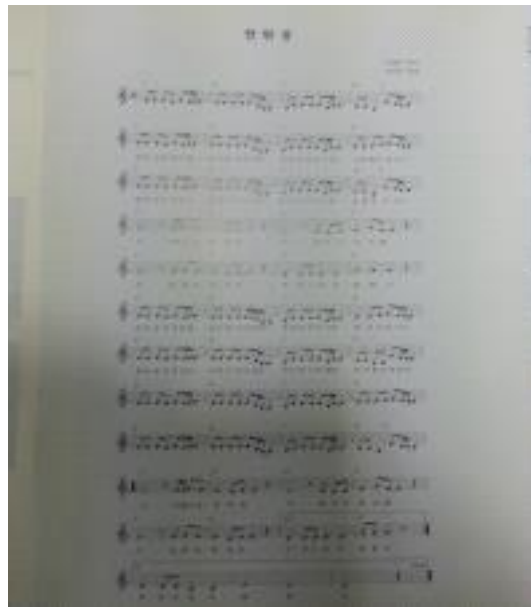
1. 은하수 밤사이 내려와 아침물결로 반짝이고  
 이슬맺힌 풀잎에 눈짓하며 머언 길  
 남대천아 너는 지금 무얼 보고 왔느냐  
 그리운 별 보고파서 꿈길따라 내려온 길  
 바위결에 부딪히며 갈길 몰라 서성이네  
 아- 소리쳐라 한탄강아 물새 아니 듣겠느냐  
 한탄-강아

2. 수천 년 맴도는 전설을 저녁여울로 되뇌이고  
 한 맺힌 바위에 볼비비며 가던 길

비둘기냥 너는 지금 무슨 생각에 잠기나  
그리운 님 품에 안고 숨죽이며 살아온 길  
바람결에 스치우며 가는 길을 재촉하네  
아- 일어나라 한탄강아 내님 아니 보겠느냐  
한탄-강아

3. 깊숙이 흐르는 네 영혼 시린 가슴 펼쳐봐도  
아직은 모르리라 네 발길 멈추는 곳  
도감포야 너는 지금 어딜 가려 하느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안타까운 네 인생길  
큰 물결에 휘감기며 온몸 마쳐 떠나가네  
아- 잊지마라 한탄강아 우리 아니 만나겠느냐  
한탄-강아

⑨ 한탄강 2 : 이철우 작사, 이근도 작곡



<가사>

1. 한탄강은 젊기에 힘차게 흐르고 한탄강은 깊기에 사연들도 많구나  
한탄강은 처음이 용암이라 뜨겁고 한탄강은 차기에 냉철도 하구나  
아 아름다운 한탄강 하늘의 귀한 선물  
사랑해요 한탄강 어머니 같은 생명수
2. 한탄강은 처음을 갈 수 없어 신비하고 한탄강은 낮기에 겸손도 하구나  
한탄강은 여럿이 모여서 하나 되고 하나된 그 여울이 우리들의 한탄강  
아 아름다운 한탄강 하늘의 귀한 선물

사랑해요 한탄강 어머니 같은 생명수  
어머니 같은 한탄강

⑩ 한탄강 아리랑 : 오세철 작사.작곡(풀피리 연주가, 포천시 영북면 자일2리 거주)

<가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라리요(후렴)// 한탄강 굽이쳐서 고석암을 감돌고/ 석정에  
걸린 달이 석정각을 비추네// 칠만암 바위 밑으로 흐르는 강물은/ 직탕폭포로 떨어져서  
고석정으로 간다네// 순담의 기암괴석은 천만 년을 빛내주고/ 금학산 높은 정기는 한탄강  
을 지켜주네// 한탄강 굽이쳐서 화적연을 감돌고/ 벚가리봉에 걸린 달은 기암절벽에 등불  
일세//

강원도 평강군 고삽면(高插面)과 함경남도 안변군 위익면(衛益面) 사이에 있는 고개 “추가령”. 높이는 752미터를 중심으로 남서 방향으로 뻗은 골짜기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남쪽으로 철원군 갈말·동송, 포천시 관인·영북, 연천군 전곡 등을 거쳐 임진강과 합류한다. 한탄강이란 본래 “한여울” 즉 “큰 여울(개울)”의 뜻으로 은하수와 같이 깨끗하고 넓고 길다고 하여 은하수 한(漢)과 계곡과 절벽을 휘돌아 흐르는 여울이란 뜻에서 여울 탄(灘)을 붙여 한탄강이라 명명 하였다.

6.25 전쟁 때 최고의 격전지인 철원은 한탄강이 중앙으로 관통하며 수십 차례 피로 물든 민족의 아픔을 품은 강으로 풀피리 인간문화재 오세철은 동쪽으로 (동부민요 메나리토리)와 남쪽으로 (경기민요 경기도리 이별가조)를 섞어 “한탄강 아리랑”을 구성지게 작사 작곡 하였다.

평생 한탄강을 벗삼아 살아온 풀피리(草笛) 연주가 오세철 씨의 <한탄강 아리랑>의 가사다. 그 누구보다 한탄강을 사랑하는 그가 작사 작곡한 이 곡은 중모리의 구성진 장단이 처음 듣는 이도 친근하게 느껴진다. “모두 4절로 이루어진 남북을 흐르는 한탄강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인데 고석정, 순담계곡, 칠만암, 직탕폭포, 화적연 등 한탄강의 명소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자주 들렀던 친숙한 곳들로 한탄강이 너무 좋아 이곳을 떠나지 않고 강과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보유자인 오세철 씨는 한탄강 예찬론자다. 그의 고향은 원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금학산 밑이다. 집에서 2분 정도면 한탄강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강과 함께 그의 예술세계를 살찌워나간다. 겸재 정선이 진경산수를 남긴 곳으로 유명한 화적연(禾積淵) 근처가 삶의 터전. 순박하고 근면한 농부이기도 한 그는 매일 강가에 나와 소리도 하고 풀피리도 분다. 아무 일사귀든 그의 손에 닿으면 훌륭한 악기가 되고 멋진 연주가 흘러나온다.

풀피리는 초적(草笛) 또는 초금(草琴)이라고도 불렸던 향악기이다. 나뭇잎이나 풀잎을 접어 입술에 대고 휘파람을 불듯이 소리를 내어 연주한다. 민초들이 주로 연주하던 풀피리는 전문악사들에 의해 궁중음악으로 승화되기도 하였다. 1493년 조선 성조 때 성현 등이 편찬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풀피리의 재료와 연주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궁중에 초적을 연주하는 악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보인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강촌섭이라는 초적명인이 취임한 초적 시나위, 굿거리 등의 음반도 있다.

오세철 씨는 중학교 시절 연천에 있는 전금산(田今山) 선생으로부터 풀피리 연주법을 배웠

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던 열정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더해 청성곡, 산조, 민속 기악곡, 메나리, 각도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고 있다. 그는 유명한 폴피리 연주가 이면서 이은관 선생으로부터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을 사사한 명창이다. 타고난 목청은 워낙 유명하며 소쩍새나 빠꾸기 등 십수종의 새소리도 일품이다. 그는 그동안 개인발표회 등 수많은 무대에서 자연의 향기가 듬뿍 밴 폴피리 소리로 한탄강의 아름다움을 전파해왔다.<sup>4)</sup>



#### ⑪ 노동요-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sup>5)</sup>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노동요(집필자 최명환(崔明煥), 갱신일 2014년 3월 31일

##### 1) 정의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새 집을 지을 때 지반(地盤)을 단단하게 할 목적으로 집터를 다지면서 부르는 노동요.

##### 2) 개관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제14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우수상, 제16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 이후 제4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 3) 사설

(받는소리) 에이얼- 싸- 지경이- 요

(메기는소리) 에이얼싸 지경이여어/ 에이얼싸 지경이여어/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땅은 어디인고/

우주의 대한민국/ 강원도에 철원이라/ 철원을 살펴보면/

4) 이연섭, 『한탄강 역사와 예술혼, 생명을 품은 큰여울의 강』(고래실, 2006)

5)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강원도의 민요(강원도, 2004), 강원전통문화총서-민속(김의숙 외, 국학자료원, 1997)

신라국 말기 시에/ 궁예왕의 도움지요/ 국호는 태봉이요/  
 철원의 제일 명산/ 금학산이 높이 솟아/ 정기는 감돌고요/  
 칠만암 고석정은/ 우리의 자랑일세/ 넓은 뜰 황금파도/  
 옥토를 이루우고/ 유유한 한탄강물/ 구비구비 치는 곳/  
 기름진 이 들판에/ 곡창을 이루우고/ 천만년 이어나갈/  
 우리의 철원일세/ 덕수 이씨 가문에서/ 철원 땅에 정착하여/  
 터전을 정하시고/ 고대광실 지을려고/ 운세를 살펴보니/  
 병자년이 대길이라/ 풍수님을 모셔다가/ 좌향을 살펴보니/  
 좌청룡 우백호는/ 화가가 그린 듯이/ 자연으로 생겨졌고/  
 득수는 신방이요/ 득파는 신방이라/ 인좌유향 판을 보니/  
 자손에게 힘이 있고/ 백만장자 되겠구나/  
 요 터에다 집을 지면/ 아들 낳으면 효자 되고/  
 딸을 낳으면 열녀 되고/ 에이얼싸 지경이여어

#### 4) 내용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얼었던 땅이 녹을 무렵인 3~4월과 초가을에 주로 한다. 낮에는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밤에 황덕불(추위와 짐승을 막기 위해 피우는 불)을 놓거나 횃불을 손에 들고서 땅을 다진다. 마을에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들은 으레 가서 다져 주고, 주인은 막걸리와 음식을 내어 대접한다. 집터를 닦기 전에 먼저 집터 가운데에 돼지 머리와 팔시루떡 등을 놓고 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집터 네 귀에 돌아가며 소금을 뿌리고 쑥을 태워서 미리 액을 막는다. 또 기둥이 설 자리에는 둘레 1m, 길이 1m 정도로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다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구리를 넣는다. 재앙이나 액을 막기 위해 고춧가루·쑥·소금·목화씨 등을 넣기도 한다. 그런 다음에 돌과 모래를 섞어서 넣고, 보통 10여 명 정도가 돌이나 나무등치에 줄을 매달고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다진다. 다질 때는 대체로 한 지점을 일흔 번에서 여든 번 정도 달구질해야 제대로 다져진다. 땅에 물이 생길 때까지 다진 후에야 그 위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운다. 집을 다 지으면 날을 받아 성주, 터주, 제석, 마구간 등 집안의 가신(家神)에게 시루떡을 바치고 고사를 지낸다.

#### 5) 특징 및 의의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협동적 노동이며, 재앙을 쫓고 축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때 부르는 소리는 지역의 유래와 집터의 환경, 집주인의 내력 등의 내용으로 시작하며, 사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어진다.

⑫ 철원8경가 : 작시·작곡-김대철, 편곡-이원도, 노래-오시찬<sup>6)</sup>

#### <가사>

1. 사랑하는 우리 동주 여덟 명승은  
 기암괴석 칠만암 고석정이라  
 바다같은 마산제며 궁예의 고적

6) 철원군, 『철원군지, 하』, 1992, 1351쪽.

자랑하고 이름내세 철원8경을

2. 산천있고 경치좋은 우리의 고향

안양사며 보개산 절승경지라  
수백년전 건립된 도피안사며  
삼부연의 폭포소리 굉장도 하다

⑬ 영평8경가 : 작곡-이병욱(서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작사-이서구(포천향토사연구소 소장), 노래-박영실(영평팔경소리보존회 회장)

<가사>

1. 수월정신(水月精神)

수월정신 박순선생  
영평팔경 시 남기고  
시조명인 봉래선생  
곳곳에 이름났네  
오성대감 이항복  
한음대감 이덕형  
양문대신 이서구  
서성선생 약봉대감  
포천의 정승판서  
풍류판이 벌어진네  
시짓고 풍류윝고  
장구치고 피리불고  
이땅의 태평성대  
이만하면 어떠리오

2. 백로주

바위산 북으로 꺾어 역수하는 물질이  
영평천 십터에서 발길 멈춘다  
백로는 떼지어 노닐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곳  
저기 터잡고 선 조각은 백로의 고향인양 우뚝하구나  
같이 한 번 놀아보세 백로 함께 놀아보세  
이 아니 좋을손가 이 아니 좋을손가  
건하게 취하거든 깨우지 말고 자게 하오  
선비의 하루가 이만하면 족한 것  
인생무상 남가일몽  
이보다 큰 낙이 어디 있으리오

3. 선유담

선녀가 놀았으니 선비도 놀았으리

선유담 골짜기는 한 여름도 서늘코나  
바위 그릇에 물담아 아래로만 흘린다  
몸담아 마음씻고 한 잔 술에 부일배하면  
신선놀음 별것인가  
세월따라 함께 늙는 소나무 울창하고  
보일 듯 말 듯 나뭇잎 사이로 황금 햇살이  
물결 위에 일렁인다  
건너편 바위에는 '선유담' 세 글자가  
아련한 천년 세월 옛 이끼를 깔았구나  
무심한 세월이 여기에도 비껴가지 않았으니

#### 4. 와룡암

구억년을 닳고 닳아 기암이 되었구나  
문지르고 부딪혀서 용바위 되었던고  
철쭉꽃 5월에는 빨간 물 되었다가  
장마철 7월에는 황토빛으로 흐르네  
이무기 수천년에 용으로 환생해서  
누워서도 용트림하는구나  
괴괴한 두 눈 부릅떠 꼬리를 쳐라  
하늘과 땅이 울고 만상을 울게 하여라

#### 5. 청학동

청학이 울었다는 청학동의 이야기는  
하늘의 뜻 알아챈 효자 아들이 찢던  
흙 되었고 돌아서려니  
청학도 한바퀴 돌고 돌아다네  
푸른학의 날개짓은 신선의 자태였고  
끼득거리는 그 목소리는 파랑새의 슬픔이었네  
어쩌면 이곳은 요순시대 백성들만  
드나들어야 될 곳 같은  
속되지 않은 정경이  
찾아든 이들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아무리 오랜 세월 흘러도 세월 흘러도  
퇴색할 것 같지 않은 청학동의 사연은  
언제고 하늘 뜻 같이 의연하고 품위있게  
우리의 강산임을 우리의 강산임을 말하리라

#### 6. 창옥병

나무도 아닌 것이 돌도 아닌 것이  
바위도 아닌 것이 흙도 아닌 것이  
병풍을 둘러친 듯 부채를 펼친 듯이

들쭉날쭉 울퉁불퉁 내려편 봉황이  
박힌 바위 점점이 떠서 백로와 노닌다오  
산 그림자 절벽 아래로 낙락장송 고고한데  
불빛을 안주하여 놓고 간들 어떨고  
그것이 싫증나면 신발 벗고 뛰어들어  
발 담그고 드러누워 신선흉내 내리라  
발 담그고 드러누워 신선흉내 내리라

#### 7. 금수정

금수정 발 아래로 물결 휘감아 들고  
쪽빛 하늘에 석양이 지누나  
지친 나그네야 쉬어나 가자  
백로 왜가리는 돌섬에서 고개 빼들고  
물속을 노리며 저녁거리 더듬는다  
먹고 먹히는 천리가 여기에도 있는 것을  
세월 넘는 풍류소리 귓가에 스치는데  
멋없이 혼자이니 그 뉘가 들어주랴  
쉬임없고 태고를 있는 냇물은 말이 없고  
붉은 노을은 시름의 한을 싣고 서산을 넘는다

#### 8. 낙귀정지

내 돌아가 즐겁게 살으리라  
정자 짓고 살던 사람  
사약 받고 죽었다네  
전설의 고향에선  
혀를 물고 피를 토해  
불귀객이 되었다니  
천만년 살면서도 건너지 못하는  
바위섬에 남시 드리우고  
고기잡는 어부되어 벗님 부르고  
지나는 길손도 잡아 앉히고  
풍류 즐기는 인생으로 살고파라  
낙귀는 불귀되고 텅 빈 집터에는  
주춧돌만 덩구는데  
세상 향해 무슨 욕심 배를 채우려오  
배불리 먹었다고 존경할 이 없고  
배 끓고 굶는 것이 자랑도 아니라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으면 하오

#### 9. 화적연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드냐  
세월에 한을 실어 흐르다 고였더냐  
벗짚단 싸놓고 머리를 틀었나  
비둘기 모양인가 용머리 형상인가  
일어날 듯 말 듯이 주저앉았네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드냐

마당바위 화적에서 멈췄다 가는 물이  
모롱이 휘돌면서 백사장을 펼쳤구나  
하늘이여 비를 주소서 기우제 올리던  
농부의 그 음성이 귓가에 아련한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드냐

억수같은 장대비 용솟음 오르고  
그 물살 화적연에 소용돌이 지나면  
선비들 둘러앉아 문장을 읊었다네  
화적연 빼어남을 그 누가 시샘하랴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드냐

## 4.3 미술

### ① 정선의 <화적연도>, <삼부연도>, <정자연도>

한국적 산수화풍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은 한탄강의 비경을 화폭에 담았다. 금강산 여행길에 만난 아름다운 한탄강의 풍광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그려낸 한탄강과 그 주변 풍경은 포천의 화적연과 철원의 삼부연, 정자연 등이다. 겸재는 중국풍 그림을 답습하던 종래 화가들의 관념산수화에서 벗어나 산천을 직접 답사하며 사생하여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고유 화법을 창안해낸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이다. 명산대천을 두루 여행하며 진경을 사생한 그의 걸작은 천하제일의 명산이라는 ‘금강산’이다. 그는 100여 폭에 이르는 금강산 그림을 그렸는데,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부감법(俯瞰法)을 써서 구도를 잡은 금강전도를 많이 그렸다. 뾰족한 암봉은 수직준법으로, 나무숲이 우거진 토산은 미점(米點)준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화풍은 산에 바위가 많고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우리 산야의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 이러한 겸재가 금강산 가는 길에 영평(지금의 포천)의 화적연과 철원의 삼부연, 정자연을 거치면서 한탄강변의 절경을 명작으로 남겼다.

#### <화적연도>

금강산 길, 제일 먼저 만난 화적연(禾積淵은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과 관인면 사정리 사이의 한탄강에 있다. 화적연은 우리말‘벼가리’의 한자역(漢字譯)으로 지금도 이곳을 찾기 위해서는 운천(雲川)에 가서 벼가리를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야 누구나 알아듣고 길을 가르쳐준다. 이곳을 화적연이나 벼가리로 부르게 된 것은 수직절벽 사이를 흐르는 한탄강 가운데 마치 벼단을 쌓아놓은 벼더미, 즉 벼가리처럼 생긴 거대한 백색 바위가 우뚝 솟아나 있고, 물줄기가 이 큰 바위를 휘감아 돌면서 깊은 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바위만을 보아서는 벼가리라 했겠으나 이를 한역하는 과정에서 그 아래 소용돌이치는 소의 의미도 덧붙여 화적연, 즉 벼가리못이 된 듯하다.

조선 후기의 문인인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은 『화적연기禾積淵記』에서 “동쪽 강 언덕은 길게 이어진 절벽에 송림이 우거져 있고 그 아래에 넓은 돌마당인데 모두 흰돌이다. 북쪽으로 물 가운데에 높이가 100척인 돌봉우리가 서 있으며, 그 봉우리 정상에는 지극히 정(靜)한 약수가 있어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그 곁에는 용혈(龍穴)이 있고 석봉 아래의 큰 연못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강물은 굽이쳐 감돌아 흐르고 남쪽 강 언덕에 이르러서는 푸른 절벽이 연못 속에 잠겨 있다. 강의 절벽 위로는 소나무숲이 우거져있고, 돌마당 위에는 제사 지내는 단을 만들어 수해나 가뭄이 심하게 들면 나라에서 희생과 폐백을 올려 중사(中祀)를 지낸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화적연은 영평 8경(永平八景 중 첫손에 꼽히는 명승으로, 이처럼 문인 묵객들이 그냥 스치는 법이 없었으니 겸재인들 그냥 지나쳤을까. 겸재도 금강산 초행길에 이곳에 들러 화폭에 옮겼던 모양인데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72세에 다시 그린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 속에 만년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 남아 있을 뿐이다. 수직절벽의 한탄강은 지금도 옛모습 그대로 절경이지만 강 가운데 우뚝 솟은 벼가리(禾積) 모양의 바위는 약간 과장된 듯 보인다. 벼가리 주변에 여러 바위들이 연속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고 벼가리만 돋보이게 한 것이 좀 다른데 이는 겸재의 의도

된 화면 구성법에 기인한 듯하다. 마치 죽순처럼 강바닥에서 솟아나온 벚가리의 원추형 돌기둥이 강 가운데 우뚝 버티고 서 있고, 그 아래로 한탄강 물이 긴 소용돌이를 지으며 감겨돌고 있다. 바로 화적연 깊은 소의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음양대비가 충분하다 싶는데 겸재는 수직절벽과 짙은 송림으로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하며 음양의 조화를 멋들어지게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 상류에 산봉우리를 배치해 화적연의 분위기를 더욱 깊고 그윽하게 바꾸어놓았다.

이런 그림을 보고 동행했던 겸재의 스승 삼연(三淵) 김창흡(1653~1722)은 제화시(題畫詩, 그림의 감흥을 돋우기 위해 그림에 붙이는 시. 제시라고 줄여 부르기도 함)를 붙였다.

높은 바위 거기 솟구치니, 매가 깃드는 절벽이요// 휘도는 물굽이 그리 검은니, 용이 었드린 못이로다// 위대하구나 조화여, 감돌고 솟구치는 데 힘을 다했구나!// 가뭄에 기도하면 응하고, 구름은 문득 바위를 감싼다// 동주東州(철원의 옛 이름) 별판에, 가을 곡신 산처럼 쌓였네// -『삼연집三淵集』 卷二十五, ‘禾積淵’ -

뒤이어 겸재의 평생지기로 진경시(眞景詩)의 대가인 사천(槎川) 이병연(1671~1751)도 다음과 같은 제시를 붙였다.

물 가운데 둥근 돌 솟구쳐, 위에 앉아 들여다보니 검은빛이다// 사람들 괴물이 서려 있다 말하게 되니, 뉘라서 감히 깊은 못에 침을 뺄까// 부딪는 물결 미미하게 솟구치고, 이는 구름 자세하게 걸린다// 원님은 비를 빌러 오는데, 길은 묵은 솔밭 가로 나 있다// -『사천시초槎川詩抄』 卷上, ‘禾積淵’ -

이를 본 후계(后溪) 조유수(1663~1741)도 제사(題詞, 그림의 감흥을 돋우기 위해 그림에 붙이는 글)를 남기는 등 겸재의 진경 솜씨를 극찬하고 있다. 한탄강의 절경과 어우러진 화적연의 풍경이 멋들어지기도 하거니와 겸재가 그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이를 화폭에 옮기고, 그 그림을 칭송하던 그의 벗들이 주고받는 문장들에는 세상사는 멋과 함께 풍류가 절로 넘쳐난다. 역시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불세출의 예술인을 낳고,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키나 보다.



그림 14 겸재 정선의 화적연도

#### <삼부연도>

겸재 정선은 포천의 화적연을 지나 삼부연三釜淵에서 또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철원 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삼부연폭포는 한탄강의 지류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3리 용화천 상류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삼팔선 이북에 속해 있던 지역이나 지금은 철원군청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어 쉽게 찾아가 시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계절 마르지 않는다는 삼부연폭포는 폭포의 생김새가 빼어나고, 떨어지는 수량도 많아 장쾌한 폭포 못지않은 절경을 자랑한다. 20m 높이의 폭포가 양 절벽 사이로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당당한 것이 장관을 이룬다. 이 물줄기가 세 번 꺾어져 떨어지며 가마솥 같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해서 ‘삼부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폭포가 떨어지는 웅덩이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푸르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던 화가 겸재가 어찌 붓을 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 금강산 가는 길에 삼부연을 지나게 된 그는 여기서 진경산수 한 점을 단숨에 탄생시킨다.

삼부연에는 가장 작은 노귀탕, 중간치의 솔탕, 큰 가마탕이 있는데 여기에 얽힌 전설이 있다. 후삼국의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고 철원에 도읍을 정할 무렵, 삼부연 계곡에는 도를 닦던 수백 년 묵은 이무기 네 마리가 있었다. 그 중 세 마리가 도를 통해 용의 몸을 받고 승천하는데, 그 세 마리 용이 기암절벽을 치고 올라가면서 바위구멍 세 개가 생겼단다. 여기에 물이 고여 연못이 된 후 삼부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그래서일까, 이곳 마을의 이름은 용화동이며, 상류 3km 지점에 용화저수지가 있다. 이 때 용이 못 된 한 마리의 이무기가 심술을 부려 비를 못 오게 해 가뭄이 들면 이곳에 단을 차려놓고 기우제를 지내

곤 했다 전한다.

삼부연폭포는 폭포 그 자체만 벼랑 위에서 계곡 아래로 떨어질 뿐 그 근원이 되는 시냇물은 벼랑 위까지 완만하게 평지를 흐르고 있다. 그러니 기암절벽으로 이어지는 만학천봉(萬壑千峯) 중의 폭포와는 그 정취가 달라 상류에 마을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신선 같은 마을에 겸재의 스승인 김창흡(1653~1722)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가족을 이끌고 은거해 살게 된다. 여기서 그는 주역 연구에 몰두하며 진경문화 창달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니 세상에서는 그를 삼연(三淵) 선생이라 일컫는다. 삼연은 물론 삼부연을 상징하는 별호다.

이렇듯 삼부연이 진경문화의 요람이 되고 보니 이후 진경문화계의 중추를 이루던 삼연 제자들이 삼부연을 찾아 시로 읊고 그림으로 그려 이를 기리게 된다. 겸재의 <삼부연>도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다. 겸재는 36세 때 금강산에 가면서 스승이 거쳐하던 삼부연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곳에 들러 그 장관을 화폭에 옮기니, 스승 삼연 또한 그 그림에 제화시를 붙인다.

거대한 절벽 검은 못에, 삼급三級으로 폭포를 이루었구나// 용은 아래에 숨고, 선비는 위에 깃들었네// 그 덕을 같이해야 하련만, 끝내 그 이름만 흠뻑을 뿐인가// -『삼연집三淵集』 卷二十五, ‘三釜淵’ -

이에 겸재의 친구로 진경시의 일인자인 사천 이병연도 제사를 읊조린다.

윗가마 가운데로 떨어지니, 파도는 아랫가마에 걸린다// 올려다보면 전체 한 가지 절벽일 뿐, 누구라 세뿔이 뚫렸다 하랴// 태초에 용이 움켰던가, 천 년을 물이 뚫었네// 조화를 물을 길 없어, 지팡이 의지하고 망연히 홀로 서 있다// -『사천시초槎川詩抄』 卷上, ‘三釜淵’ -

안타까운 것은 초기의 <삼부연도>가 현재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화적연도>처럼 72세에 다시 그린 『해악전신첩』 속에 그림이 들어있고, 삼연의 제사와 사천의 제시가 다시 베껴져 적혀 있을 뿐이다. 이 그림은 겸재 만년기의 호방장쾌한 필법이 거침없이 구사된 걸작이라 할 수 있다. 화면 중앙으로 불쑥 솟아오른 거대한 돌기둥 모양의 고립 암봉과 그 맞은편 암벽을 쓸어내린 부벽찰법(도끼로 쪼갬 단면처럼 수직으로 보이도록 붓으로 쓸어내려 절벽을 나타내는 먹칠법), 봉우리 끝과 시냇가를 따라 울창하게 들어선 소나무숲의 흥건한 먹칠법이 보이는 강렬한 대비와 조화는 겸재 그림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예다. 폭포 아래 너럭바위에 서서 폭포를 바라보는 네 명의 선비와 두 동자는 겸재 일행이었던 모양이고, 등성이 너머로 나 있는 산길은 삼연이 은거한 용화촌으로 가는 길인 듯하다. 지금은 굴이 뚫려 있어 높은 고갯마루를 넘지 않아도 된다.

#### <정자연도>

겸재는 한탄강의 또 하나의 걸작 <정자연亭子淵>도 남겼다. 정자연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 있는 명승지로, 남방한계선 바로 아래 백골부대 명공 OP를 휘감아 돌아 흐르고 있다. 그 옛날에는 시인 묵객들이 찾아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을지 모르나 지금은 총을 든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는 우울한 풍경이다.

남한 최북단의 한탄강 본류에 있는 정연(亭淵)은 고려시대부터 철원과 평강 지역에 세거하며 번창해온 창원 황씨의 농원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조선 광해군 때 강원감사를 지낸 월담 황근중(月潭 黃謹中, 1560~1633)에 의해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월담이 관찰사로 재임했던 당시는 광해군의 난정과 당쟁의 소용돌이로 어수선했던 때였다. 인조반정으로 정계에서 밀려나게 되자 그는 한탄강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현무암 절벽 위에 8칸 규모의 정자를 세우고 창랑정(滄浪亭)이라 이름지었다. 정자의 이름은 초사로 유명한 굴원의 「어부사漁父詞」 가운데 “창랑의 물 맑으면 내 갯끈을 빨 것이요, 창랑의 물 흐르면 내 발 씻으리로다……”라는 곧은 절개를 표현한 문구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는 정자 주위의 빼어난 풍광을 8경으로 승화시켜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육모정(六牟亭), 무릉정(武陵亭), 적벽(赤壁), 약수(藥水), 월탄(月灘), 백운봉(白雲峰), 풍혈(風穴) 그리고 창랑정, 이를 가리켜 ‘정연 8경’이라 하여 시로 읊고 글벗과 화답하는 시회를 열고는 했다. 8경이 있는 이곳은 금강산으로 접어드는 길목이어서 문인들이 운집하는 명소가 되었고, 자연스레 ‘정연’ 또는 ‘정자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뒤에 창랑정은 병자호란 때 청군에 의해 전소, 이후 월담의 5세손인 황손(黃遜, 1692~1776)에 의해 재건되었으나 6.25전쟁 당시 철의삼각지대의 중앙에 놓였던 터라 포화 속에 사라져버렸다. 지금 그 정자가 있던 자리에는 운치라고는 없는, 아니 오히려 주변 분위기를 깨는 콘크리트 정자가 세워져 있고, 어느 장군의 이름을 따 ‘세직정’이라 명명했다니 월담이 기가 막혀 웃을 일이다.

겸재가 그의 평생지기인 금화현감 이병연의 초청으로 36세 때(1711년) 금강산에 처음 가면서 이곳에 들렀을 때는 병자호란(1636년)으로 창랑정이 전소된 후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다. 겸재는 평강현감을 지낸 김양겸 등 지인들이 있어 이곳을 자주 찾았으며, 정자연 그림을 적지 않게 남겼다. 그림은 오리탄(五里灘, 5리여울) 혹은 칠리탄(七里灘, 7리여울)이라 불린 수직암벽이 일자로 대안에 길게 펼쳐져있고, 시내 이편에는 노송과 잡목 숲에 싸인 초가집 두 채가 섯울타리에 둘러쳐져 있다. 비슷한 또 하나의 그림은 ‘무오 가을에 우암 최영숙을 위해 그리다 戊午秋 爲寓庵崔永叔寫’라는 글로 보아 겸재가 63세 때 그린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겸재의 그림에 비쳐진 정연의 아름다운 강촌마을은 지리발으로 변해 있고, 겸재를 따라 더 이상 금강산으로 갈 수가 없다. 바로 옆 한탄강 위에 옛 금강산 전철이 다니던 철교만이 남아 겸재가 이 길로 금강산을 드나들었겠구나 짐작할 뿐이다.<sup>7)</sup>

7) 이연섭, 『한탄강 역사와 예술촌, 생명을 품은 큰여울의 강』(고래실, 2006)의 pp-에서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림 15 겸재 정선의 정자연도

## ② 김광우, 조각 작품



김광우(金光宇, 경기도 포천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9회 국내외 초대전 350여회, 각종 미술제와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고, 대통령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음,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평화와 화해의 길> - 작품 해설

- 한탄강 둘레길의 요소요소에 전쟁과 평화를 테마로 하는 야외설치 조각을 전시하여 순례길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의미를 격상시킨다.
- 한탄강 일대를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서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의 메시지 전달한다.
-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평화의 중요성을 통해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③ 임승오, 조각 작품(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Barcelona 대학교 미술대학 석사 조각전공, Barcelona 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개인전 16회, 현(사)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포천미술협회장, amclimso @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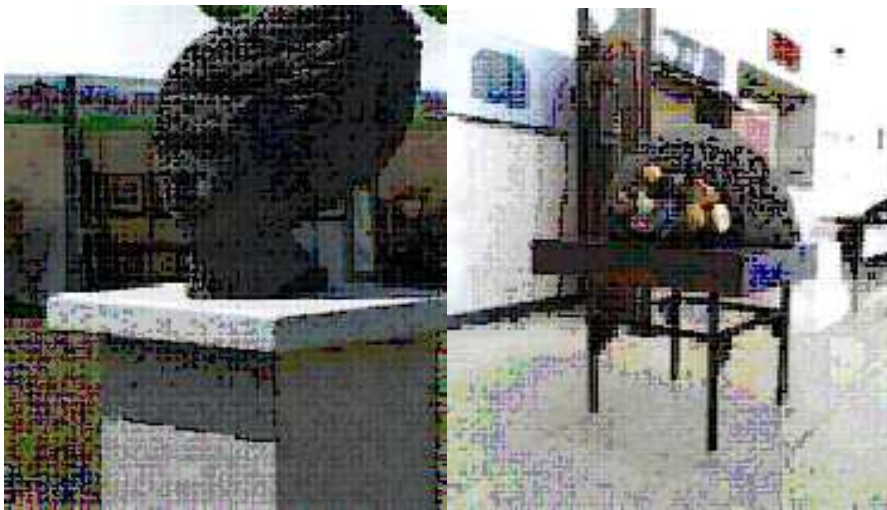
한탄강 “화적연” 시를 쓴 조선후기 사가시인 척재 이서구 선생 시비

<조각 임승오, 글씨 이봉석 2014. 포천600년기념사업 (포천 체육공원 내)>

“한탄강변에서 - ” 임승오 작 2015



④ 박용득(연천 지역작가, 대추나무, 연(the group exhibition of the kite in a jujube tree) 정기전 24회, 한탄강 현대 야외조각 흐름전 2회, 현재 한국미협 조각분과 정회원, 한국미협 동두천지부 조각분과장, likemum@hanmail.net)





⑤ 김옥의(연천 지역작가, Ecol-de Gana, Master Course, 한국 폴리텍 1대학 강서캠퍼스 실내건축,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한국미술협회, 전국조각가협회, 연천 대추나무 공공미술 Gg 갤러리 대표, gain542002@hanmail.net)

Sisa Interview 김옥의 조각가

조각은 환호와 부조로 나뉜다. 환호는 사람이나 의지처럼 공간 속에서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불체와 같은 상이며, 부조는 배경이 되는 벽 등의 바탕으로부터 튀어 나와 있거나 또는 거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그 일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회화가 공간에서 조각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조각은 실체로 조각의 형태를 만들어 내어 물질적인 선조성을 가진다. 그래서 조각은 3차원의 예술세계라고 한다. 창작행위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조각은 소재 발굴의 난이도 등 예외적인 우고와 역동적인 함으로써 회화보다도 더욱 정교한 솜씨를 기지아 한다. 전후세대 중 절망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지향 미의향으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랜 경험과 작업을 바탕으로 출간작가본 발행에 오른 김옥의 작가의 만나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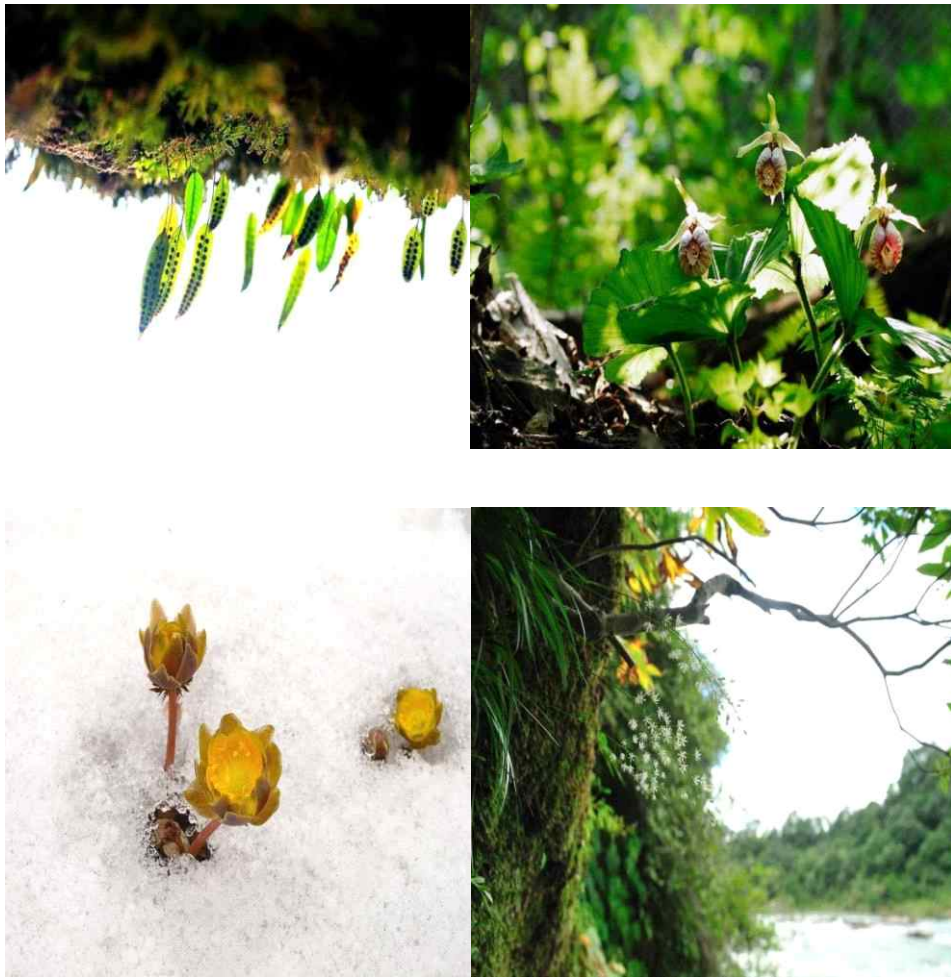
김옥의 조각가

연천지역 주민과 밀착해 예술 교류...  
예술체험캠프 '그레아',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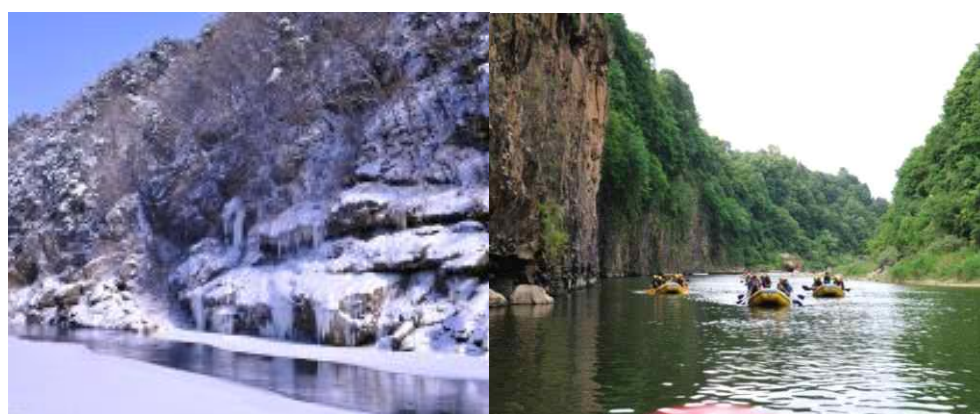
1 - September 2014

## 4.4 사진

① 권순(포천 관인 출생, (주) 순그린 대표이사 역임, 현재 관인문화 발전소, 한여울갤러리 대표, 관인면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포천시농촌지도자연합회 홍보이사, 포천시자연보호연합회 홍보이사, 한국아마추어사진작가협회 사진작가, 관인면 냉정리에서 수도작과 고추 농사를 지으며, 한탄강 4계절의 생태계와 풍경을 사진 속에 담으며 고향의 (한탄강과 냉정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참여하고 있다.)







② 강돈희(포천 출생, 사진쟁이, 시인, 사진개인전 13회, 단체전 50여회, 시집 : <꿈을 찍는 사진쟁이 / 2005 > <어떤 그리움 / 2006 > <내가 그리는 풍경 / 2009 > <가을향기 / 2012 >



③ 황헌만(황헌만의 사진기행, <임진강>, 역사만들기,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신문사와 잡지 기자, 현재 'M2 스튜디오'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것들을 서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집으로 <장승>, <초가>, <조선땅마을지킴이> 등이 있다.)

#### ④ 정운봉(누드 사진 작가)

50여 년간 누드 사진작업을 해온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작가 정운봉 씨는 80세가 훨씬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 그는 우리나라 누드 사진작가 중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누드 사진 중 절반은 한탄강을 배경으로 했을 만큼 한탄강에 대한 애정이 깊다. 평안북도 철산이 고향인 작가는 7세 때 철원으로 이사와 어린 시절부터 한탄강을 벗삼아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오래도록 기억했던 아름다운 풍경들을 누드와 접목시켜 또다른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그의 누드 사진은 스튜디오 촬영이 거의 없다. 주로 강이나 절벽, 계곡 등을 배경으로 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광 아래서 자연과 여체가 조화를 이뤘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탄강 주변은 모래, 돌, 강, 계곡이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누드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다. “나는 스튜디오가 따로 없고 한탄강이 바로 내 스튜디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작가는 “한탄강은 자연과 인간, 즉 여체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한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탄강이 누드장소로 좋은 점은 계곡이 깊어서 뒷배경을 어둡게 광선처리 할 수 있고 춘하추동 4계절 빛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한탄강 중에서도 즐겨 찾는 곳은 철원의 고석정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마당마위와 직탕폭포, 아래쪽으로는 순담계곡까지로 이 구간이 한탄강의 백미라고 말한다. 아기자기하고 멋진 풍광,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화무쌍한 한탄강을 보면 전국을 누비고 다녀봐도 누드 사진 찍기에 이만한 곳이 없구나 싶다고 한탄강 예찬을 늘어놓는다.

그는 한탄강에서 찍은 누드 사진으로 동아국제살롱전 은상,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등 여러 사진공모전에서 입상을 했고 국전의 초대작가가 되었다. 1983년 회갑기념으로 ‘나裸와 경景’이란 누드 사진집을 내려고 했을 때에는 외설로 몰려 문공부 허가를 받는 데 1년이 걸렸었다.

그는 이후 수많은 전시회와 함께 『누드 다이어리』, 『옷을 벗는 여자』 등의 저서도 출간했다. 요즘도 현장을 누비며 작품활동에 여념이 없는 그는 한탄강 전국누드사진 촬영대회도 기획해 철원에서 개최토록 하는 등 한탄강을 누드 사진 촬영의 명소로 만들어놓았다. 한탄강과 사랑에 빠진 작가는 “한탄강은 조물주가 만든 예술작품으로 그 멋진 배경은 봐도봐도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낄 줄 모른다.<sup>8)</sup>

#### ⑤ 진익태(생태 사진작가 ‘두루미 박사’)

생태 사진작가 진익태 씨(철원군 갈말읍 토성리)는 16대째 철원을 지켜온 토박이 농사꾼이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에 새가 포착되면 순박한 농군의 눈빛은 먹이감을 포착한 독수리의 눈처럼 빛을 발한다. 매년 겨울철 철원평야를 찾는 두루미, 독수리 등 철새를 앵글에 담고, 또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농업인이 아닌 생태 사진작가로서 또 다른 진씨의 삶이다. 지난 1999년 4월에는 방한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철원평야를 비상하는 두루미 사진 21점을 액자와 앨범으로 만들어 전달했다. 환경보호론자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사계절 두루미 서식지인 일본 구시로시를 방문할 정도로 두루미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20여 년간 철원을 찾는 새들과 동고동락해온 진씨는 그동안 철원과 서울, 춘천 등지에서 다섯 차례의

8) 이연섭, 『한탄강 역사와 예술혼, 생명을 품은 큰여울의 강』(고래실, 2006)의 pp.198-202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철새 사진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청정 철원과 새의 소중함을 알렸다. 1998년에는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한 . 일 사진전에 일본의 두루미 전문 최고 사진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하야시다 츠넌오씨와 함께 초대되기도 했다.

국제자원보호연맹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두루미는 전세계에 걸쳐 15종뿐인 희귀조로 이들 중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등 모두 6종류가 국내에서 목격되었다.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같은 지역에서 월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철원이 유일하다. 철원은 겨울철 서식지인 시베리아에서 일본 남단 이즈미시로 이동하는 재두루미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몰린 두루미는 철원평야가 최대의 월동지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철원 두루미학교를 열어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으며, 철새사진으로 엽서와 달력, 책자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있다. 또 중 . 고교 시절부터 향토문화에 관심이 많아 1988년부터 10년간 철원 문화원 사무국장과 이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진씨는 “새가 살아야 인간도 산다”며 “청정의 철원평야가 영원히 두루미의 휴식처로 남아 철원의 보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sup>9)</sup>

---

9) 이연섭, 『한탄강 역사와 예술촌, 생명을 품은 큰여울의 강』(고래실, 2006)의 pp.202-206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5.5 영상 자료

### ① 연천 영상 자료

1. OBS <로드다큐 만남> 이란 프로그램에서 지난 2014년 8월 18일 (제43회) '임진강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을 송출했고, 2015년 6월 1일 (제82회) '임진강의 어부 열전'을 방송했다.
2. <연천 역겹의 세월을 품다 제1부와 제2부> : 연천군에서 제작을 의뢰하여 촬영한 것으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소개와 임진강·한탄강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추진에 관련된 홍보 동영상이다.

### ② 포천 영상 자료

1. <포천 한탄강> : 포천시에서 제작한 동영상이다. 포천 한탄강 8경 소개와 한탄강 홍수터와 개발 사업 소개, 한탄강을 철원·연천과 연계하여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한 홍보용 동영상이다.
2. OBS 뉴스 동영상(폴피리 무형문화재 오세철의 한탄강 아리랑)
3. 화적연 기우제 재현 행사 영상(2015년 9월 12일)

### ③ 철원 영상 자료

1. 철원 관광 홍보용 영상

- ④ EBS '한국기행' <한탄강>(2014. 01. 06-2014. 01. 10까지 5부작 방영, 제1부 - 한여울에 기대어, 제2부 - 강, 희망을 품다, 제3부 - 흐르는 것이 강물뿐이라, 제4부 - 강 추위의 즐거움, 제5부 - 겨울 풍경 한 조각)

- ⑤ KBS '한국인의 밥상'(철원, 포천, 연천)

### ⑥ 영화

<사격장 아이들>: 1967년 김수용 감독이 만든 영화로 각본은 장재화가 담당하였다. 실제로 포천시 중리의 문랫골에 있는 사격장 마을을 답사한 후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남과 북의 분단과 근대화 물결이 일던 혼란한 시대에 휴전선 근처에 사는 해맑은 아이들과 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참교육을 그린 계몽 드라마 영화이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에 대한 애정을 그린 영화로 교훈적인 의도와 동시에 사회구조의 모순을 비판한 사실주의 영화라는 평을 받았다. 제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기술상과 특별상, 작품상을 받았다. 제5회 청룡영화상에서 촬영상과 감독상을, 제11회 부일영화제에서 남우조연상을, 제3회 대일영화상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의 분단으로 휴전선이 세워지고, 근처에 사는 실향민 마을학교에 서울에서 교육받은 여선생 오지영(김지미 분)이 부임한다. 그렇게 첫 학교와 학생에 대한 설렘으로 부임한 그녀는 그곳의 아이들의 순수함에 감동하는 한편,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 없는 모습과 무지함에 실망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따르면서 저마다 의사나 비행기 조종사, 무용가의 꿈을 키우며 학교생활에도 열성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안도한다. 또한, 마을 근처 사격장에서 탄피와 파편을 주워 팔며, 어려운 살림에 보태는 등 집안 살림에 힘이 되기 위

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오지영은 연민과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월남한 실향민 영규 아버지 상현(허장강 분)은 아들이 열심히 탄피를 주워서 판매한 돈을 술과 노름에 탕진하고, 용순은 어머니(정애란 분)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등 아이들의 상황은 공부하기에 더욱 열악하게 변한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 역시 생계비 마련을 위해 탄피를 줍다 위험지역에서 폭발사고를 당하며 정신적인 장애를 입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며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오지영 선생은 아이들을 물심양면 도우며, 관심과 애정을 준다. 또한, 아이들의 부모 역시 계몽시키려 노력한다. 그녀의 노력으로 마을 어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격장의 아이들 (Children in the Firing Range)